Entertainment p/18

록·컨트리·힙합 한자리에

메트로 2015년 2월 25일 수요일 제3162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0

추신수 "올시즌 하던대로"

가족친화 롯데

연중기획 〈가정이 있는 직장〉 ① 롯데그룹 p/12

3년전 기업 최초로 '자동육아휴직제' 실시
남성 육아휴직·초등 학부모 1개월 휴직 도입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경제위기 막바지 극복 최선"

박용만 商議회장 재선임 p/10

손연재 코카콜라 체육대상 MVP p/20

정의선 땅 왜 샀을까? 후계자금 마련용인 듯

p/10

"사드 논의 확대를"…정부 '전략적 모호성' 비판

안보전문가 토론회

부정여론 中까지 확산 초래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정책이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1일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한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해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말해 온 한국 정부를 당혹하게 만들었다.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같은 날 국회에 출석,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이 국방부로서 현재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사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24일 국방부는 레이더 탐지거리가 북한 권역에 국한된 사드를 미국이 한국에 배치할 거라는 보도에 대해 "미국정부에서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불신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자초했다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사드 배치,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사드에 대한 논란은 선동적인 루머에서 비롯됐다"며 논란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로 정부를 지목했다.

박 원장은 "어떤 선동루머가 생성되었을 때 그 사안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명확한 해답을 즉각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제시할 경우 선동루머는 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와 해당기관들은 선동루머에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침묵을 지키거나 설명을 계속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했다. 사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설명이다.

박 원장은 사드가 현실성이 없고 동북아 군비경쟁을 유발할 거라는 한국 내 우려에 대해 정부가 "미국이 요청한 적이 없다"며 비판여론을 피하려는 태도만 되풀이하다가 논란을 확대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드에 대한 한국 내 부정적인 시각이 한국 학자들과 접촉한 중국 학자들을 통해 중국으로 확산되며 중국이 한국 내 논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 역시 이 같은 인식에 공감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사드 문제에 관한 한 논의의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는 논의가 주로 사드 도입의 필요성 유무와 중국의 내정간섭적 반대에 대처하는 문제에 국한되고 있지만 사드 확보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이미 세 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고 핵 위협을 통해 남북관계를 주도하려는 시기에 미국이 아시아의 동맹국에게 국가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제약을 가하는 것은 가히 시대착오적"이라며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무관하게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산업과 미사일의 개발·배치에 부과하고 있는 제약은 모두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북한 위협…내달 2일 한미연합훈련 개시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에도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훈련을 예정대로 다음달 2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키 리졸브는 2008년부터 시작된 국군·주한 미군·해외 미군이 벌이는 정기 군사 훈련으로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 연습과 통합되어 매년 실시되고 있다.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키 리졸브 연습에 참가할 미군 병력은 외국서 전개되는 6750명을 포함한 8600여명이다. 한국군은 1만여명이다. 또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독수리 훈련에는 외국서 전개되는 3500명을 포함한 3700여명의 미군이 참가할 계획이다. 한국군은 사단급 부대 이상 20만여명이 참가한다.

특히 이번 키 리졸브 연습에는 미국 연안전투함(LCS)인 포트워스호가 처음으로 참가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얕은 해저 지형에 맞게 제작된 포트워스호는 헬리콥터·MQ-8 수직 이착륙 무인정찰기(UAV)·구경 57㎜ 자동화기·21기의 지대지 미사일·헬파이어 미사일·MH-60 헬기 등을 탑재하고 있다. 미 7함대 지휘함인 블루릿지함은 한반도 근처 바다에서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함정을 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키 리졸브 연습에는 주한유엔군사령부에 파견된 국가 중 호주·캐나다·덴마크·프랑스·영국 등 5개국의 소수 병력도 참가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에 파견된 스위스와 스웨덴 측은 이번 훈련이 정전협정의 취지에 맞게 진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연습에 참관한다.

연합사는 이날 오전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 일정과 이번 연습이 연례적인 방어훈련임을 북한군 판문점대표부에 통보했다.

/정윤아기자

힘찬 첫걸음 국군간호사관학교 신입생도들이 24일 대전 유성구 자운대 내 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입학식을 끝내고 연병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잠수함사령부 창설에도 승조원은 '애국페이'

잠수함승조원 중 부사관 57명이 지난해 열악한 업무 환경으로 인해 대거 전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1일 잠수함 사령부를 창설하면서 잠수한 전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한 국방부가 실제 잠수함을 운용하는 승조원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군본부가 16일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국방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잠수함승조원은 대거전역외에 모집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사관의 경우 특히 힘든 분야로 알려진 전기특기는 지난해 44명을 모집했지만 6명만 지원해 무려 38명이 강제로 차출됐다. 특히 갑판·조타·무장 등 부사관 12개 특기 중 음탐·추진기관·전기특기는 지난 5년간 79명이 전역해 전체 전역 부사관 승조원 130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거 전역과 모집의 어려움의 원인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수당이다.

해군본부는 잠수함 승조원 지원율을 높이고 주요 특기의 전역률을 낮추기 위해 2015년 예산에 잠수함 잠항가산금 신설 등 총 15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수당을 인상하려 했으나 재원부족, 수당 인상기준 미부합 등의 이유로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2016년도 예산에도 총 17억원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반영여부는 불확실하다.

/정윤아기자

KFX 사업 'KAI vs 대한항공' 2파전 확정

기술선 KAI, 투자선 대한항공이 유력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 입찰에 대한항공이 24일 참여함에 따라 사업 수주를 놓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대한항공의 2파전이 확정됐다.

현재 KAI는 차기전투기(FX) 사업자인 록히드마틴과 KFX 투자와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다. 록히드마틴은 차기전투기 사업 절충교역 협상에서 KFX 기술이전을 한국 정부에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기 제작과 기술 측면에서 열세인 대한항공은 에어버스D&S와의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 이로 인해 KAI와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게 됐다.

기술적 측면에선 국산 고등훈련기 T-50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 KAI가 유리하지만 투자 여력 측면에선 기업 규모가 큰 대한항공이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미국 정부의 기술이전 통제를 받는 록히드마틴에 비해 유럽업체인 에어버스D&S는 상대적으로 핵심기술 이전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물론 현재는 T-50과 기동헬기 수리온 등을 개발한 경험이 있고 제조시설도 갖추고 있는 KAI가 앞서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대한항공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수출승인(E/L)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고 기술 이전도 쉬울 것"이라며 "최적의 파트너인 에어버스D&S는 한국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강한 의지가 있으며 핵심기술 이전을 실현할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요구하는 성능 이상의 최신예 전투기를 전력화 일정 내에 개발할 것"이라며 "자주적인 성능 개량 능력과 첨단 신형엔진, 전자식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등 최신 항공전자 국산화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KAI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항공기 개발능력과 숙련 인력·설비 면에서 타사보다 뛰어나다"고 자신들의 장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방사청은 접수된 입찰 제안서 평가를 통해 다음 달 중 우선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5월까지 협상을 거쳐 6~7월 중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KF-X 체계개발 업체를 최종 선정해 계약할 예정이다.

/정윤아기자 yoona1@

최경환 자원외교 책임론에 "어이 없다"

"해외자원개발 불가피한 선택"…국정조사 파행

이명박정부에서 자원외교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 출석해 '총체적 실패'라는 야당의 자원외교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자신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이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조사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야당의 총구는 최 부총리를 겨냥하고 있다. 최 부총리가 친박(친박근혜) 핵심실세라는 점에서 현 정부에 대한 공세의 성격도 있다. 야당에서 최 부총리의 사퇴까지 요구하며 강하게 압박하자 여당은 이에 반발해 국조특위는 파행을 겪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특정 실패 사례를 가지고 정책 전반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사업 특성을 균형 있게 보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며 야당의 비판에 맞섰다. 그러면서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수익은 연차별로 회수되는 중장기 프로젝트"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 진행 중인 많은 사업들의 경우 아직 성공과 실패 여부를 확정하기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정부 출범 시 국제유가가 급등해 자원의 안정적 수급 필요성이 커지면서 투자를 더욱 확대했다"며 "해외자원개발은 정권과 상관없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석유·가스 등 주요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마다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다"며 "외부요인에 휘둘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자원외교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하베스트사 인수사업과 관련해 "당시 (지경부) 보도자료에는 (사업 주체를) 정부와 석유공사'라고 표현했다. 정부의 주도하에 사업이 이뤄졌다는 증거"라며 책임추궁에 나선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배포 당시) 해외에 있었다"며 "어이가 없어서 답변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야당 측에서 이 답변을 문제 삼자 여당 의원들이 "증인이 제대로 답변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그치지 않았느냐"고 항의, 여야간 언쟁으로 번졌고 결국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기관보고는 파행됐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24일 정부·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노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결국 이날 국조특위는 파행됐다. /연합뉴스

문화체육 활성화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오찬'에서 사회자의 안내말을 듣고 있다. 이 자리에는 박용현 한국메세나협회장, 구본무 LG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선관위 "지역구 줄이고 비례 2배 늘리자"

'권역별 비례대표·석패율 제도 도입'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지역구 국회의원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지금보다 2배가량 늘리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의 도입이 골자다. 여기에 고비용 정치의 원인으로 지목돼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 부활과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선관위는 이날 개정 의견에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게 했다. 또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들 가운데 해당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낙선자들은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한 석패율 도입을 제안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후보자의 득표수가 출마 지역구 유효 투표수의 3%에 미달하거나 소속 정당이 해당 권역 지역구 당선자의 20% 이상을 점유한 경우에는 당선될 수 없도록 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숫자도 현재의 2배가량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현재는 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의 비율이다. 선관위 안은 비례대표를 100명 안팎까지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200명 안팎까지 줄이자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 논의와 관련해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방안도 제안했다. 선거일 11일 전부터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고 후보자 사퇴 시 선거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한 내용도 있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이정희 후보의 '먹튀 논란'을 감안한 장치다.

지구당 제도 부활은 '구·시·군당'의 설치를 허용,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신 운영경비 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선관위에 회계 보고하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정치자금 허용은 법인과 단체도 연간 1억원까지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송병형기자

문재인, 월성1호기 폐기 두고 전면전 선포

문재인 새정치연합대표가 24일 열린 '월성1호기 연장가동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수명이 끝난 원전의 재가동에 제동을 걸며 정부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세월호 참사 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며 박근혜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월성1호기 연장가동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 참석해 "박근혜정부는 설계수명이 끝나 지난 2012년 가동이 중지된 월성 원전 1호기를 연장 가동하려 한다"며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한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또 다시 벼랑 끝으로 올려놓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후 박 대통령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했다"며 "월성 1호기와 (다른 노후원전인) 고리 1호기의 폐쇄야말로 진정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성원전의 수명을 연장한다면 박 대통령의 약속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부산에는 고리 1호기가 있는 만큼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클 것"이라며 "문 대표도 지역구를 찾을 때마다 원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해 왔다"고 전했다. 문 대표는 19대 국회 들어 당 원전대책특별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원전 1호기 연장가동 여부를 심의하기로 함에 따라 긴급소집됐다.

/정윤아기자 yoona1@

새정치연합, 2월 국회서 '박상옥 청문회' 거부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가담 시비에 휘말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월 임시국회에서 거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자는 역사적 사건 은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 내 청문회 실시는 불가하다는 것이 당의 총의"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987년 검사 시절 서울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진에 참여한 이력이 들어나면서 자질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한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이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법관 공석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인사청문회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대법관 한 분이 공석인 상태에서 계속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면서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꼭 받아들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윤아기자

"겁나서 이 동네 못 살겠어" 이탈리아 나폴리의 피아누라 지역에서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 23일(현지시간) 인근 주민 약 38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사진은 공중에서 내려다 본 현장 모습으로 안전요원과 일부 주민들이 통제선 뒤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종전 70년… 아베 정부의 고민

안팎에서 제동 걸리는 일본 극우 행보… 미 상·하원 합동연설 반대 운동도

일본의 극우 행보가 국내외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강력한 과거사 사죄를 요구하는 가운데 아베 총리의 방미 연설에 대한 미국 시민사회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외교가에 따르면 4월 말 또는 5월 초 방미하는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 총리 사상 처음으로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미국 현지 시민참여센터와 워싱턴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등 한인 단체들은 "아베 총리는 그동안 과거사에 대한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 의회연설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 극우 행보에 대한 냉엄함은 법조계에도 확산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은 23일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이 글렌데일시를 상대로 제기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 주장이 잘못됐다"고 기각했다.

앞서 '역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글로벌 연합'이란 일본계 극우단체는 지난해 2월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에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켰다.

◆일본에서 과거사 사죄 여론 확산

한편 일본 정부가 올여름 '전후(戰後) 70년 담화'를 준비하는 가운데 일본 국민들은 아베 총리가 과거사 사죄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케이 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가 지난 21·22일 일본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1.6%가 "일본 정부가 무라야마 담화에 있던 '침략'이나 '반성' '사죄'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가 자위대 확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안보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절반을 넘어섰다.

1995년 당시 무라야마 총리는 전후 50년을 맞아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뜻을 밝혔다. 2005년 발표된 고이즈미 담화에서도 무라야마 담화를 거의 계승했으나 아베 총리는 이를 부정하고 일본의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발언으로 국제적 공분을 샀다.

최근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총무회장은 "전후 70년 담화에 식민지배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환갑에 출산한 러시아 여성

metro Moskva

최근 모스크바의 한 산부인과에서 60세 여성이 아기를 출산해 화제가 됐다.

20일 메트로 모스크바에 따르면 필라토프 제15번 시립 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는 "이 여성은 출산 이후 곧바로 자궁 절제술을 받았다"며 "산모의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아기와 산모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산모는 퇴원해 아기와 집으로 돌아간 상태다.

러시아 산부인과 협회 대표 블라디미르 세로프는 "60세 여성이 출산을 한 것은 매우 희귀한 사례"라며 "60세 여성의 자연 임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이 여성 역시 체외수정을 통해 임신과 출산에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초고령 여성의 출산은 이미 몇 차례 보고된 바 있다. 2011년 우크라이나에서 65세 여성이 딸을, 2012년 스위스의 66세 여성이 남아 쌍둥이를 출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에 성공했으며 특히 이 우크라이나 여성은 무려 7년간 인공수정을 시도한 끝에 건강한 쌍둥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슬라나 카르포바 기자·정리=장윤희기자

"따라할게 따로 있지"

이집트 'IS 참수' 흉내 동영상 논란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인질 참수 장면을 흉내 내면서 노는 이집트 소년들의 동영상(사진)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4일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에 따르면 24초 분량의 짧은 동영상에는 건축 현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인질 역할을 하는 10살 남짓의 소년 2명이 손이 뒤로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다. 다른 어린이가 긴 나무 막대기를 휘두르며 "우리는 어린이와 여자, 노인들을 살해한다"고 소리치자 뒤에 있던 아이들이 인질 역할의 친구를 나무 막대로 죽이는 시늉을 한다.

IS가 인질을 참수할 때 진행하는 순서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이집트 언론인 무함마드 엘다흐샨은 "IS의 잔악한 행태가 동심까지 오염시켰다"며 "내가 본 것 중 가장 슬픈 동영상"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국명기자 kmlee@

마그나 카르타 제정 800주년 현대 헌법과 인권법의 기초가 된 영국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제정 800주년 기념 리셉션이 열린 런던 버킹검궁에서 23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오른쪽)이 마그나 카르타 필사본을 살펴보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여성도 동등한 권리 누려야"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아퀘트 수상소감 화제

"이제 (남녀)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미국에서 여성도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할 때가 됐다." 영화 '보이후드'에 출연해 올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거머쥔 유명배우 패트리샤 아퀘트(사진)의 수상 소감이 화제다.

22일(현지시간) 진행된 올해 아카데미 영화상 시상식에서 아퀘트는 동료 배우, 영화 제작진,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후 갑자기 "아이를 낳은 모든 여성, 납세자, 미국민 모두는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싸워왔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자 객석에 있던 여배우 메릴 스트리프와 제니퍼 로페즈 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호응했다. 특히 메릴 스트리프는 오른 손을 쭉 뻗어 보이며 "그래 바로 그거야"라고 소리지르며 화답해 눈길을 끌었다.

아퀘드 이전에도 의미심장한 발언과 행동으로 화제를 모은 유명 여배우들이 많다.

지난해 1월 미국영화배우조합(SAG) 시상식장에 분홍색 원피스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유명 여배우 케이트 블란쳇은 카메라가 자신의 모습을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훑어 올라가자 "남자들한테도 그래요?"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해 1월 골든글로브 시상식장에서는 세계적인 연기파 여배우, 엠마 톰슨이 고가의 명품 하이힐을 내던지며 여성의 건강을 위해 하이힐을 벗어 던져야 한다고 외쳐 이목을 끌었다.

/이국명기자 kmlee@

신한銀 차기 행장에 조용병 사장 내정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내부 신망 높아…조직 안정화 기여할 듯

국내 리딩뱅크인 신한은행의 최고경영자로 조용병(사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이 내정됐다. 조 내정자는 국내외 금융 전문가로, 서진원 행장에 이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지주는 2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자회사경영발전위원회(자경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자경위는 이달 초 서 은행장이 개인 사정으로 퇴임의사를 밝힘에 따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에 따른 은행장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했다.

조 내정자는 다음달 열리는 은행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는 2년이다.

그는 대전고, 고려대를 거쳐 지난 1984년 신한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인사부장, 기획부장, 뉴욕지점장을 지내며 글로벌, 경영지원, 개인영업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다. 이후 지난 2013년 1월부터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으로 재임해왔다.

이번 차기 행장 내정으로 신한은행의 리딩뱅크 입지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서 행장이 이달 초 연임이 무산으로 내홍을 겪었다. 지난 2010년 신한사태를 잠재우고 신한은행을 리딩뱅크로 격상시킨 서 행장의 부재 탓이다.

하지만 신한금융은 내부 승계프로그램을 가동, 발빠르게 내부조직을 추스렸다.

조 내정자도 꼼꼼한 일처리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내부 신망이 높은 점도 내부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2010년 신한사태 이후 불거진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 등 파벌싸움 속에서도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적인 경영자로 꼽힌다.

자경위 관계자는 "조용병 내정자는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축적된 금융업에 대한 통찰력, 업무추진력, 조직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십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저금리, 저성장 시대를 맞아 조 내정자의 자산운용회사 경험과 글로벌 사업 추진 경험이 은행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 자경위는 이날 내정할 예정이던 신한금융투자 사장과 신한캐피탈 사장 후보는 3월에 결정하기로 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market index <24일>

코스피 1976.12 (+7.73)

코스닥 621.31 (+5.79)

금리(국고채 3년) 2.06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110.90 (+1.20)

국내은행 BIS 기준 총자본비율 13.89%

지난해 은행권의 구조개편 등으로 국내은행의 재무구조에 살짝 금이 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4년말 국내은행의 BIS자본비율 현황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작년 말 국내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13.89%로 전년말보다 0.64%포인트 내렸다.

총자본비율이 13%대로 하락한 것은 2013년 2분기(13.88%) 이후 6분기만이다. 여기에는 원화대출금 증가 등 위험가중자산 증가율이 자기자본의 증가율을 상회한 점이 영향을 끼쳤다.

위험가중자산은 은행권의 합병과 자회사 편입효과와 대출증가, 환율상승 등으로 전년보다 12.7% 증가했다.

특히 위험가중자산 증가액의 61%인 94조5000억원은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합병과 우리금융지주의 은행전환 등이 차지했다.

은행권의 구조개편 효과를 제외할 경우 전년 말 대비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 보통자본비율 하락폭은 0.39%p, 0.37%p, 0.16%p다.

반면 자기자본은 당기순이익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으로 7.7% 오른데 그쳤다.

같은기간 기본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0.47%p, 0.43%p 떨어진 11.32%, 10.76%로 집계됐다.

BIS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모든 은행의 총자본비율은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인 10% 이상을 충족하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은행별로는 일반은행의 경우 한국씨티은행 총자본비율이 16.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은행(15.95%), 신한은행(15.45%), 광주은행(14.74%), 하나은행(14.72%), SC은행(14.68%)가 뒤를 따랐다.

특수은행 가운데는 농협은행이 14.05%로 높았고 수출입은행이 10.55%로 가장 낮았다. /백아란기자

"대학생 금융인재 양성" 우리은행 아카데미 마련

우리은행은 24일 안성연수원에서 대학생 금융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우리은행 금융아카데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2기째를 맞는 '우리은행 금융아카데미'는 대학생 금융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이날부터 2박3일 동안 열리는 아카데미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선발된 대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생활에서 접하기 힘든 금융지식부터 취업전략, 소양교육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 은행사 박물관 관람을 통해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글로벌 금융위기 등 우리나라 역사의 주요 역경들 속에 역할을 해 온 우리은행의 116년 역사를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글로벌 금융시장동향과 취업면접을 위한 이미지메이킹 전문가 교육도 마련됐다.

특히 인사담당자와 함께하는 실전 면접체험 프로그램과 올해 입사한 신입행원들과의 대화시간을 마련해 취업정보와 직장생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우리은행은 본점 지하에 위치한 은행사박물관에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은행과 화폐의 역사를 배우는 '은행사박물관 어린이 체험교실'도 열었다. /백아란기자

김주하 농협은행장(앞줄 가운데)이 본사 대강당에서 제2회 방카 연도대상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은행 제공

농협은행, '방카부문 우수 직원·지점' 시상

NH농협은행은 24일 본사 대강당에서 '제2회 방카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상은 밀양시지부 박영일 팀장이 안았으며 금상은 박종범(삼척시지부)외 2명 등 총 25명의 방카매니저들이 수상했다. 우수영업본부는 강원와 제주영업본부가, 우수사무소는 강릉시지부를 비롯한 5개의 사무소가 선정됐다.

한편 농협은행 방카사업은 출범 이후 매년 좋은 사업성장을 보이며 지난해 초회보험료 1조5000억원, 수수료 1000억 원의 실적을 거양했다.

김주하 농협은행장은 "지난해 방카사업이 좋은 실적을 거양할 수 있었던 것은 수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올해도 직원들과 협력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KB금융, 현직 회장에게 차기 선임 우선권 부여

지난해 지배구조와 관련, 홍역을 앓은 KB금융지주가 개선안을 마련했다. 현직 회장에게 차기 회장 선임의 우선권을 주는 점이 눈에 띈다. KB금융은 이번 개선안에 따라 관피아 등 외부 입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B금융은 최근 외부 컨설팅업체의 연구용역과 내부 논의를 거쳐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주 전산기 문제로 촉발된 지배구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직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 재직 기간 내 경영실적과 내부 평가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연임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후보군에서 가능한 배제한다.

이 개선안이 시행되면 경영관리위원회원인 그룹내 계열사 CEO들이 차기 회장 1차 후보군에 자동적으로 포함된다.

현재 경영관리위원회는 국민은행장, KB국민카드 사장, KB손해보험 사장, KB금융지주 부사장, 국민은행 주요 그룹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다른 금융사 CEO나 학계, 관료 출신 등 외부 인사라고 하더라도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을 올린 사람이면 1차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다. /김형석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IFRS4 2단계 도입 시 장래이익 포함돼야"

보험연, 보험사 재무건전성 규제 정책보고서 발간

보험부채를 원가에서 시가로 반영하는 국제보험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 2) 도입 시 장래손실과 더불어 장래이익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은 24일 위 내용이 포함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지급여력(RBC) 평가 연계방안'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 확정 발표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IFRS4 phase 2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보험계약에서 예상되는 장래손실과 장래이익을 산출할 수 있다.

이 회계기준은 상품 판매 시 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계산해 보험가입 시점이 아닌 '결산시점의 변동된' 위험률과 금리인 시가로 반영한다.

문제는 이 회계기준의 경우 장래손실은 서비스 제공 전이라도 장부에 손실로 즉시 반영하는 반면, 장래이익은 서비스 제공 전에는 이익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3년 기준 생명보험사의 이익계약과 손실계약은 각각 64조원과 35조원으로 예상된다. 29조원의 장래이익이 발생하는 것. 하지만 이 회계기준 상에서는 손실분인 35조원만 장부에 반영된다.

보고서는 예상손실분만 반영될 경우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은 현행 286%에서 115%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하회하는 수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서는 ▲부채 적정성 평가 단계적 강화 ▲장래이익을 장래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 ▲금융당국과 시장이 자본감시 역할 분담 등을 제시했다.

부채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가용자본의 정의, 손익상계 관련 상품구성과 할인율 포함, 평가기준 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했다.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계약은 만기까지 유지되지 않고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장래이익은 물론 장래손실의 발생 가능성 역시 소멸된다"며 "IFRS4 phase 2를 도입하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이 과도하게 낮게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변동에 따라 할인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대다수 보험회사의 RBC비율 급락이 불가피하다"며 "급여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할인율 급등락을 조정할 감독수단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금융권, 내부출신 CEO 시대

금융권 최고경영자 인사가 잇따라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내부 출신 CEO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 자회사경영발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용병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을 차기 신한은행장으로 선임했다.

조 내정자는 지난 1984년 신한은행 입행으로 금융권에 첫 발을 담근 이후 기획부장과 뉴욕지점장을 거쳐 글로벌사업과 리테일 영업추진 등 다양한 업무를 두루 경험한 신한맨이다.

앞서 하나금융지주 역시 1992년 창립 구성원으로 하나은행에 합류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연임키로 결정했다.

'관피아'(관료 출신)가 사라진 자리에 그룹을 잘 아는 내부 출신이 선임되거나 연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CEO 후보에도 내부출신들로만 채워졌다. 내부 출신 CEO시대가 본격 개막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새 수장에 이름을 올린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또한 내부 출신이다.

외환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에도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관료)'였던 윤용로, 조준희 후임으로 내부출신인 김한조 외환은행장과 권선주 기업은행장을 선택했다.

금융그룹 내에서도 내부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내부출신 CEO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KB금융지주는 최근 내부 승계 프로그램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는 현직 회장에 연임 의사를 먼저 타진토록 하는 등 현직 경영진이 경영 승계에서 우선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과 안정적인 CEO 승계를 위한 것. 은행장과 계열사 사장 등은 경영 승계의 '1차 후보군'으로 고려된다.

윤종규 KB지주 회장의 연임 발판도 마련된 셈이다. 내부 승계 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지배구조 구축 움직임은 KB뿐만이 아니다.

하나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역시 지난 2011년, 2012년 내부 경영진 위주의 CEO 승계 프로그램을 만든 바 있다.

한편 내부 출신 등용은 관치금융을 철폐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너서클'을 형성하는 등 제왕적 권력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내부 출신 승계를 근간으로 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사도 마찬가지지만, 외국 금융사들은 실적 악화 때 언제든지 외부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열린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내부 승계 프로그램도 이와 같은 개방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KB생명 제공

3대 주요 안질환 보장 특약 나왔다

KB생명은 25일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성망막병증 등 3대 주요 안질환 수술을 보장하는 '안질환수술보장특약'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해 11월 출시한 '무배당 KB 치아사랑 플러스보장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3대 주요 안질환에 대한 수술 시 수술 1회당 70만원을 지급한다. 일반안질환에 대한 수술 시 수술 1회당 10만원을 지급한다.

단 보장 개시 후 2년 이내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이 50% 삭감 지급된다. 다래끼 수술, 선천성 질병과 재해로 인한 수술, 검열반, 쌍꺼풀수술, 사시교정, 안와 격리증의 교정 등 외모개선목적의 수술, 시력교정술의 경우는 보장이 제외된다.

보험기간은 갱신없이 10년 만기다. 보험료는 35세 연령 기준 남자 90원, 여자 100원이다.

한편 주계약인 '무배당 KB치아사랑플러스보장보험'은 충치, 발치, 신경치료, 크라운치료와 임플란트 포함 보철치료 등 치과질환을 폭넓게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험료는 35세 연령 기준 남자 2만4650원, 여자 2만5450원 수준이다.

KB생명은 "단순한 치아보험을 넘어 눈 건강까지 챙기는 보험상품으로 개발했다"며 "최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의 과도한 사용, 고혈압·당뇨 등 성인병 증가 등으로 인한 안과 관련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 잠재적인 고객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라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삼성카드 "전산시스템 개선 작업 중"

삼성카드는 24일 전산시스템 개선 작업으로 신규카드 발급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설 연휴기간 동안 진행된 회사 전산시스템 개선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제한되는 서비스는 금융상담과 개인신상정보 변경 등이며 온·오프라인에서의 카드결제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시스템 개편에 따른 최적화 작업을 초기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고객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른 시간 내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현대캐피탈, 전기차 리스 전용상품 출시

현대캐피탈은 24일 친환경차인 전기차 전용 리스상품을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전기차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구매를 장려코자 각각 1500만원과 300만~700만원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새차 가격이 높고 중고차 거래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현대캐피탈 전기차 전용 리스상품은 만기 후 잔가(예상 중고차 가격)를 보장해 줌으로써 중고차가격 하락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초기 구매비용 부담을 줄여준다.

또 직접 구입 시 받는 보조금 혜택도 그대로 리스료에 반영된다. 아울러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단한 비용처리로 절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예컨대 4250만원인 기아차 쏘울 EV를 보조금 혜택을 모두 받는 리스로 이용할 경우 월리스료는 44만원에서 47만원 수준이다.

여기에는 취득세, 공채, 자동차세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계약이 끝나면 타던 차량을 반납하거나 구매 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된다.

현대캐피탈 법인영업 관계자는 "최근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전기차 리스상품 출시는 공공기관과 법인의 전기차에 대한 보급을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배당 확대 대세… 주머니 두둑해질 종목은?

기업 배당 32% 증가… 역대 최대 전망

국내 상장사들의 배당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2014년 연말 배당 추정치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의 2014년 기말 배당금이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며 "총 배당규모는 17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발표된 490여 종목의 2014년 기말 현금배당 합계는 우선주 포함해 12조3000억원이었다. 이들 종목의 전년 배당금 9조3000억원보다 32%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2014년 기말 배당이 모두 발표됐을 때 현금배당 합계는 17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보통주 기준으로 주당 배당금 증가폭이 가장 큰 종목은 삼성증권으로 나타났다. 엔씨소프트 배당금도 600원에서 3430원으로 472% 뛰었다. 또 부국증권(186%) 메리츠종금증권(107%) 동양생명(175%) 삼성생명(112%) 등 증권·생명보험업종의 배당금 상승폭도 눈에 띈다. 호텔신라(133%)도 배당금을 두 배 이상 올렸으며, 올해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장사도 만도, BGF리테일 등 19곳에 달했다.

이처럼 국내 상장사들이 배당을 늘리는 것은 정부가 배당 확대를 강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형주들의 배당 증가 추세도 한몫했다.

코스피200 배당액지수 증가분에서 세 종목의 배당 증가 기여도는 총 74%에 이른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 48%, SK하이닉스 14%, 현대차 12%에 달한다.

이에 따라 올해도 배당 투자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당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가는 기업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김민규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가된 배당금은 투자자 입장에서 직접 수혜에 해당한다"면서 삼성생명, LG전자, SK텔레콤, GS, 삼성물산 등이 배당 증가로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 꼽았다.

류주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배당 확대는 향후 이익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로 해석할 수 있다"며 "배당 확대는 기업이 앞으로도 상당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전자투표 계약 상장사 올 181개사 신청

전체 260개사 중 절반

다음 달부터 진행될 주주총회 시즌에 앞서 상장사들의 전자투표제도 신청이 대폭 증가했다.

전자투표제 실시가 실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3일 기준 총 260개사가 전자투표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에만 계약 상장사의 절반인181개사가 체결을 완료했다.

주요 계약사는 신한금융지주, 광주은행, 아시아나항공, 현대증권, SK증권, 교보증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이다.

상당수의 기업들이 전자투표제 도입에 나섬에 따라 소액 주주들은 목소리 내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장까지 직접 찾아갈 필요 없이 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보라기자 purple@

최대 연 8.0% 수익 추구 ELS 등 2종 공모 하이투자증권은 25일부터 27일 오후 1시까지 ELS 2종을 총 10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 /하이투자증권 제공

한 발 늦은 상가 권리금 보호 또 '불발'

"임차인 보호는 당연" vs "임대인 권리 과도 침해"

상가 임대차 거래 시 관행상 주고받던 권리금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다시 도마에 올랐으나 불발됐다.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계류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과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이날 오전 제331회 국회 임시회 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됐다.

상가세입자들은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연내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지만 여야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번 법안 심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권리금 법제화 방안에는 ▲권리금 정의와 범위를 법으로 규정 ▲권리금 거래 시 금액을 명시하는 표준계약서 도입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임대인에 대해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권리금은 기존 점포가 갖는 영업시설·비품 등의 유형물이나 거래처·고객·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 가치를 양도 또는 일정 기간 이용하는 대가를 말한다. 한 점포의 전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기며 포기해야 하는 시설비와 영업권을 의미한다. 지난해 9월 정부와 업계는 국내 권리금 규모를 30조원으로 추산했다.

그해 정부는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 발표하며 상가 임차인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제화가 미뤄진 것에는 구체적인 세부안을 놓고 여야는 물론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권리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차인 보호는 마땅하지만 계약기간을 법으로 길게 보장해 임대인의 재산권까지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권리금과 임대료 사정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에게까지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고 그동안 신경쓰지 않았던 임차인 간 권리금 거래에 신경을 곤두서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권리금이 계약서에 명시되면 임대료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장사가 잘 돼야 권리금도 붙는 것인데 요즘은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임대료가 워낙 높아 권리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 간 권리금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데 권리금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일정 부분 임대료 상승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선 대표는 이번 논의가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개정안이라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다"며 "임대료 조정은 임차인이 바뀌면서 이뤄지는 경우가 보통인데 처음부터 임대료를 높게 부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 국제시장 '꽃분이네'로 불거진 '건물주-1차 임대인-2차 임대인'으로 구성된 전대 관계 권리금 문제는 이번 개정안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1차 임차인이 전대를 놓는 것은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되는 권리금 분쟁에서 누구를 보호해야할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대림산업, 'e편한세상 보령' 분양

충남 보령에서 처음으로 대형브랜드 아파트가 선보인다.

대림산업은 충남 보령시 동대동 187-2번지 일대 'e편한세상 보령' 677가구를 4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 지상 20층, 9개동, 전용면적 73·84㎡로 구성됐다.

e편한세상 보령이 들어서는 동대동은 대천천 남측 신흥 도심축에 속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홈플러스, 법원, 보령시청, 종합터미널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고, 동대초, 대명중, 대천중·고, 대천여고와 인접했다.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서천~공주 고속도로와 당진~영덕 고속도로를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이들 광역교통망을 이용한 세종시, 대전시와의 접근성도 뛰어난 편이다.

보령시 내 주포농공단지와 고정·영보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젊은 실수요자들이 꾸준히 유입된다는 점을 감안, 대림산업은 전체 677가구를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했다. 또 보령 최초 'e편한세상' 브랜드 단지인 만큼, 독창적인 설계를 적용했다.

우선 e편한세상의 특허기술인 끊어지지 않는 단열설계를 적용해 열교와 결로현상을 방지하고, 냉·난방 효율을 높였다.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침실에는 표준보다 10㎜ 두꺼운 30㎜, 거실과 주방에는 60㎜의 차음재를 적용했다.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독일의 '레드닷 어워드(Reddot Design Award) 디자인상'을 수상한 'Stylelec 디자인'도 적용했다. 스위치와 온도조절기, 콘센트, 월패드, 라이트 리모콘과 같은 전기 제품군에 유렵형의 세련된 디자인을 제공한다.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과 헬스장, 게스트하우스 등의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선다.

견본주택은 충남 보령시 동대동 481-3번지, 홈플러스 보령점 옆에 마련됐다. 입주는 2017년 6월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삼성물산, '래미안과 함께 2호선 나들이'

삼성물산은 서울 광진구 자양4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프리미어 팰리스' 분양을 앞두고 '2호선으로 나들이가요' 이벤트를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달 2일부터 내달 29일까지 8주간 3회에 걸쳐 진행되는 릴레이 이벤트의 일환이다. 문화·편의시설 접근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획됐다.

래미안 홈페이지에 관심고객으로 등록한 후 올 봄 가고 싶은 2호선의 유명한 장소를 선택하면 된다. 아파트와 1정거장 거리인 건대입구역의 스타시티몰 롯데시네마, 3정거장과 6정거장 떨어진 잠실역 롯데월드와 삼성역 코엑스몰 아쿠아리움 중 고를 수 있다.

참여 기간은 오는 3월 8일까지다. 당첨자들에게는 롯데월드 자유이용권(10명), 코엑스 아쿠아리움 2인 이용권(20명), 4인 영화예매권(30명)이 제공된다. 이 외에도 100명에게 소정의 선물이 주어진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주변의 유명한 문화·편의시설들을 이용하면서 래미안 프리미어팰리스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올해 첫 장기전세주택 청약접수 SH공사가 목동센트럴푸르지오 등 장기전세주택(시프트) 290가구에 대한 인터넷·방문 청약접수를 24일 시작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로 SH공사 강당에서 청약자들이 청약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표준지 공시지가 7년 만에 최고 상승…4.1%↑

한전부지 실거래가 공시지가 5배

서울 명동 입구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당 8070만원, 3.3㎡(1평)당 2억6000만원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25일 공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나온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4.1%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 직전인 2008년(9.6%) 이후 7년 만의 최고 상승률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6% 올랐고,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와 지방 시·군은 각각 5.4%와 6.0% 상승했다. 지방이 세종·울산·나주 등의 개발사업에 힘입어 땅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시·도별로는 세종시가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과 토지수요 증가로 15.5% 뛰면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반면 세월호 사고 여파로 관광객이 감소한 인천은 2.4%로 가장 적게 올랐다.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충무로1가 24-2번지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다. 처음으로 8000만원을 넘기며 ㎡당 8070만원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7700만원보다 4.8% 상승했다.

이 땅은 2004년 ㎡당 4190만원을 기록하며 전국 최고 땅값 자리에 오른 이후 12년째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공시지가와 달리 실제로 가장 비싼 땅은 삼성동 옛 한전부지. 3.3㎡당 4억3882만원이다. 이곳의 올해 공시지가는 ㎡당 2580만원으로 전년(1948만원)보다 32.4%가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그럼에도 여전히 3.3㎡당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5분의 1 수준인 8500만원에 그쳤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이 땅을 사면서 감정가(3조3000억원)의 3배가 넘는 10조5500억원을 써냈고, 이 일로 정몽구 회장이 주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박선옥기자

현대차 정의선 팔당호 주변 땅 왜 샀을까

2007년 정몽구 비자금 사건 후 경영권 승계 자금 마련용인 듯

"피고인 정몽구는 소외 정의선 등과 공모하여 계열사들의 자산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아들 정의선에게 계열사들의 주식 지분 대부분을 취득하게 함에 따라 계열사들이 적지 않은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

회삿돈 1034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사적 용도로 쓰고 경영권 편법승계 시도 등을 한 혐의로 2007년 재판에 넘겨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다.

정 회장은 이 같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최종심에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1,2,3심 재판부는 정 회장이 편법으로 외아들인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현 현대차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계열사 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사실을 주요 혐의로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몽구 회장은 정의선 부회장 등과 공모해 정 부회장이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정 회장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 기아차 전장부품 납품업체인 '한일전장공업' 자산과 주식을 '지유'라는 회사에 넘긴 뒤 정 부회장이 '지유' 지분 87%를 취득하게 했다. 이후 '지유'가 기아차 전장부품 업체인 '본텍'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정 부회장은 자연스럽게 '본텍'의 대주주가 됐다.

이 과정에서 현대모비스 자금 245억원과 기아차 자금 240억원을 '지유'에 대여해 ' 본텍' 유상증자 자금 등으로 쓸 수 있게 했다.

이후 본텍은 현대오토넷(현대차 전장 부품 납품 계열사)에 흡수합병되고, 현대오토넷은 다시 현대모비스에 흡수합병됐다.

만약 아무런 잡음이 없이 이 과정이 진행됐다면 정 부회장은 자연스럽게 현대모비스의 주요주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자동차의 지분 20.78%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사실상 현대차 그룹의 지주회사다. 정 부회장이 당시 현대모비스 지분을 20% 이상 확보했다면 현대차그룹의 경영권 승계작업은 사실상 완료될 뻔 한 셈이다.

하지만 정 부회장은 검찰 조사와 정몽구 회장 재판 과정에서 이것이 불법 경영권 승계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지유'와 '본텍' 등 관련 지분을 대부분 포기하거나 다른 계열사로 넘겼다.

이렇게 2000년 초부터 약 6년여간 진행되던 현대차 그룹의 1차 경영권 승계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이로부터 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대차그룹 경영권 승계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시 경영권 승계 구상이 검찰과 법원에 들통나 일단 무산됐지만, 정몽구 회장 입장에서는 또 다른 묘수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룹을 이끌기에는 이제 연로한 정 회장으로선 아들인 정 부회장에게 본인의 재산을 상속해야 하는 등 경영권 승계를 서두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정 회장의 재산은 상장 주식 평가액만 5조원이 넘는다. 정 부회장에게 재산을 넘기려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최소한 2조5000억원 이상을 내야한다.

최근 메트로신문 보도로 드러난 경기도 퇴촌면 일대 정 부회장의 땅도 궁극적으로는 이 승계 작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들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땅은 한강 상수원인 팔당호 주변에 있어 당장은 큰 돈이 되지않지만 근처에 현대차 연구소라도 하나 지으면 땅 가치는 순식간에 수십배 뻥튀기될 수 있다.

/유선준기자 rsunjun@metroseoul.co.kr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 최상규 사장(오른쪽), 홈엔터테인먼트(HE)사업본부장 권봉석 부사장(왼쪽)이 2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서초R&D캠퍼스에서 2015형 LG TV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LG전자 "올해 올레드 TV 대중화… 10배 이상 판매"

슈퍼 울트라HD TV와 함께 투트랙 전략

LG전자가 올해 중국·일본 기업과 손잡고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의 대중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수량 기준 전년보다 10배 이상 판매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권봉석 홈엔터테인먼트(HE)사업본부장 부사장은 24일 양재동에 위치한 서초R&D캠퍼스에서 '2015년형 TV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올레드 TV는 지금까지 LG전자가 단독으로 시장을 끌어왔으나 일본·중국 업체들을 선별해 올레드 얼라이언스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업체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올레드 TV 대중화를 위한 전략 가운데 하나로 풀이된다.

권 부사장은 "올레드의 기술적 장점 중 하나는 LCD 패널에 비해 수율 개선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올해 TV 교체 수요가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올레드 TV를 수량 기준으로 전년보다 10배 이상 판매하고 내년을 위해 판매 역량 기반을 확보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프리미엄 제품을 원하는 고객들의 수요에 맞춘 제품군을 확대하고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격대를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권 부사장은 2015년형 올레드TV 제품에 대해 "TV 크기 면에서 55인치에서 77인치까지 중대형 라인업 구축을 완료했고 가격 역시 UHD TV의 1.4배 수준으로 맞췄다"며 "해상도는 FHD에 이어 UHD까지 가능한 풀라인업 체제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지난해 5종이었던 올레드 TV 모델 수를 올해 10여 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레드 TV의 독보적인 강점에 대해서는 ▲상하좌우 넓은 시야각(angle) ▲완벽한 블랙 구현(black) ▲자연색에 가장 가까운 컬러(color) ▲얇고 세련된 디자인(design) 등 ABCD로 정리해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존 LCD 기반의 울트라HD TV보다 색재현율을 높였고 새로운 화질 엔진을 장착해 명암비도 크게 향상시킨 '슈퍼 울트라HD TV' 제품군도 처음 소개됐다. LG전자는 올레드 TV와 슈퍼 울트라HD TV로 프리미엄 TV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대한상의 회장 재선출

"올 한해 성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앞날이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24일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서울상의 정기의원총회에서 회장 재선임 관련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상의 회장은 관례에 따라 대한상의 회장을 겸하게 돼 이번에 대한상의 회장으로 추대한 것과 마찬가지다. 대한상의 의원총회는 다음달 25일 개최된다. 서울상의와 대한상의 회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박 회장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전임 손경식 회장(CJ그룹 회장)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정식 임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회장은 "올해가 경제 위기의 막바지라고 얘기한다"면서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어려운 시기에 상공인들이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람이 많으면 길이 열린다"면서 "상공회의소가 앞으로 더 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 회장은 제22대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재선출돼 공식임기가 시작됐다.

/양성운기자 ysw@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재선임

조양호(사진) 한진그룹 회장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에 재선임됐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24일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2015년 정기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조 회장을 임기 3년의 15대 회장으로 재선임했다.

조 회장은 2004년 6월 11대 회장으로 선임된 이래 5대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을 역임하게 됐다.

조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변혁의 시기에 방진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다시 맡게 돼 개인적인 영예와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방위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부의 적극적인지원을 이끌어내, 방산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하면서 회원사 간 협력을 도모하는 데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1976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해 현재 대한항공, 삼성테크윈, 기아자동차 등 635개 업체가 회원사다.

/이정필기자 roman@

제네바모터쇼 통해 '티볼리' 글로벌 론칭

쌍용차, '티볼리' '코란도 스포츠' 등 주력 모델 전시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이유일; www.smotor.com)가 제네바모터쇼를 통해 '티볼리'의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글로벌 론칭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3월 3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2015 제네바 모터쇼(85th Geneva International Motor Show)'에서 쌍용차는 국내에서 지난 1월 출시해 선풍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My 1st SUV '티볼리'(사진)를 해외에 첫 선을 보이며 글로벌 시장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쌍용자동차는 이번 제네바모터쇼에서 'New Start with Tivoli' 전시 콘셉트로 420㎡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티볼리'를 비롯해 '코란도 스포츠', '코란도 C', '렉스턴 W', '코란도 투리스모' 등 차량 7대를 전시하여 유럽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판매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제네바모터쇼 프레스데이 기간(3월 3~4일)에 '티볼리'의 특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특별한 전시를 할 예정이다.

'티볼리'의 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댄디 블루 2-tone, 플라밍 레드 2-tone, 재즈 브라운, 아이스캡 블루, 실버 등 다양한 외관 색상과 개성에 따라 연출 가능한 커스터마이징 아이템은 물론 전기차 콘셉트카 'Tivoli EVR'을 선보이며 '티볼리'의 매력을 한층 배가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종훈기자 fun@

'뉴 아우디 R8' 레이저 헤드라이트 공개

최첨단 기술로 높은 광도·넓은 조사 반경 제공

아우디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아우디의 고성능 미드십 스포츠카 '뉴 아우디 R8'에 장착될 새로운 레이저 헤드라이트(사진)를 공개했다.

'뉴 아우디 R8'은 새로운 레이저 라이팅 기술을 포함한 최첨단 기술을 탑재하 고 고성능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뉴 아우디 R8'에 장착될 레이저 헤드라이트의 특징은 0.01 밀리미터의 초소형 레이저 다이오드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레이저 하이빔의 조사 반경은 기존 LED 하이빔 헤드라이트의 두 배에 달하며 조사 가능 길이는 수백미터에 달한다.

아우디의 레이저 헤드라이트에는 네 개의 고강도 레이저 다이오드로 이루어진 레이저 모듈이 양쪽 헤드라이트에 하나씩 장착되어 있다. 이 모듈은 각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생성되는 450 나노미터 파장의 균일한 청색광 4개를 하나로 묶어, 인광 변환기(phosphor converter)를 통해 일반 도로 주행 시 적합한 순수 백색광으로 전환시킨다.

'뉴 아우디 R8'의 기본 장착 헤드라이트는 각 37개의 LED로 이루어진 LED 헤드라이트 시스템이며, 고객은 선택 사양으로 새로운 레이저 하이빔 라이트 모듈을 장착할 수 있다.

아우디의 레이저 헤드라이트는 2014년 여름 한정판 모델로 출시된 '아우디 R8 LMX'를 통해 처음으로 대중에 선보였다. 이에 앞서 열린 '2014 르망 24시간 레이스'에서 '아우디 R18 e-트론 콰트로' 레이싱카에 최초로 적용돼 아우디의 13번째 우승 대기록에 일조한 바 있다.

아우디는 라이팅 기술의 벤치마크 브랜드로서 주간운행등을 2004년 '아우디 A8 L W12'를 통해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또 LED 주간운행등,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레이저 스팟 헤드라이트 등 진보된 라이트닝 기술력을 통해 아우디의 핵심가치인 진보, 스포티함, 우아함을 시각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김종훈기자

내부 구조조정 삼성 외부 M&A

이재용 체제 후 그룹 변화 살펴보니…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혁 드라이브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부회장이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인수합병에 속도를 내는 한편 경영 실적이 부진한 곳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다. 삼성SDI가 잘하고 있는 자동차용 배터리 사업과 삼성전자가 영역을 넓히고 있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확실히 밀어주고 있다. 또 삼성 실적의 구원 투수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사업 설비투자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반면 방위산업·석유화학 사업 등 비수익성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주요 계열사는 실적부진에 따라 대대적으로 감축을 하고 있다.

◆기업 미래 핵심 역량 집중

이 부회장 체제의 삼성은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사 마그나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팩 사업, 미국 사물인터넷 개발사인 스마트싱스, 미국 모바일 결제 솔루션 업체 루프페이, 빅데이터 관련 기업인 프록시멀 데이터 등을 인수했다.

또 이 부회장은 지난 24일 세계 최대 전자결제 회사인 페이팔의 공동창업자 피터 틸과 만났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가 핀테크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해당 사업과 벤처기업 투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애플페이'에 맞설 '삼성페이(가칭)'를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해외 유망 벤처기업들을 잇달아 사들이며 생태계 환경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또 자체 개발한 OS 타이젠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인도에 첫 출시했다는 점도 비슷한 맥락이다. 타이젠OS를 사물인터넷의 심장으로 삼아 다양한 산업의 진출을 꾀할 수 있다. 반도체 부문은 올해 15조원대 설비투자를 투입해 1등을 넘어 종합반도체 회사로 도약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내부적 엇갈린 명암

삼성의 분위기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삼성은 한화와의 빅딜을 진행한데 이어 최근에는 치과용 엑스레이 장비 전문업체인 레이를 매각하기도 했다. 인수합병과 더불어 매각도 진행하며 안되는 사업은 재빨리 정리하고 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앞장서고 있다. 작년 호실적을 기록한 반도체총괄 부문과 무선사업부는 50%에 육박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반면 실적 부진을 겪은 계열사는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지난해 4분기 600여명의 직원을 내보낸데 이어 지난달 800명의 직원에게 희망퇴직을 통보했고 삼성전자도 소리 없이 인력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상시적인 인력개선 작업일 뿐 인위적 구조조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희망퇴직 독려를 위해 퇴직금을 지난해 1인당 최대 1억6000만원에서 이번에는 직급에 따라 최소 1억9000만원부터 최대 2억2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직원들은 '구조조정 명단'에 긴장하고 있다.

앞서 삼성은 금융계열사인 삼성증권과 삼성생명 이외에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도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수원사업장내 무선사업부 소속 임원 36명이 퇴임이나 자문역으로 통보를 받으면서 현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 스마트폰 구매시 동물 배터리팩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4' '갤럭시노트 엣지' 등 최신 갤럭시 제품 구매자를 위한 이벤트를 연다.

삼성전자는 S 아카데미 20주년을 맞아 갤럭시 최신 제품 구매 고객에게 특별한 동물 배터리팩을 증정하는 'Hi 갤럭시! Hi 배.프!' 사은 행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25일부터 3월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갤럭시노트4 S-LTE, 갤럭시 노트4, 갤럭시 노트 엣지, 갤럭시 A7, 갤럭시 A5, 갤럭시 탭S 광대역 LTE-A를 구매하고 개통한 후 S 아카데미 온라인 사이트에 등록하는 소비자 전원에게 멸종위기 동물 외장 배터리팩(8400mAh)을 제공한다.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8400mAh 배터리팩은 일반적인 스마트폰 배터리의 약 3배에 이르는 용량으로 어디든지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어 장시간 야외 활동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멸종위기 동물 외장 배터리팩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선정한 대표적인 멸종위기 동물을 캐릭터로 만들어 제작됐다. 캐릭터는 국내 디자인 브랜드 성실화랑과 '멸종위기동물 그래픽 아카이브'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디자인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은품으로 증정되는 배터리팩을 통해 사라져가는 멸종위기 동물과 교감하며 소비자들의 일상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수요일은 가족사랑의 날

상계동 롯데어린이집 2호점

'일과 가정'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어떻게 찾느냐가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의 맞벌이 부부 비율은 전체 가구의 절반에 이르지만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 출근 전, 퇴근 후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하는 따뜻한 식사는 찾아보기 어려운 풍경이 됐다.

하지만 직원들의 행복수준은 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또 일·가정 양립은 국가적으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법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출산율을 지속하면 2750년에 인구가 소멸된다는 섬뜩한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 출산·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부여하는 등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직원과 가족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가족친화 경영을 펼치는 기업들도 점점 늘고 있다.

메트로신문은 2015년을 맞아 '가정이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적극적인 기업들을 매주 수요일자의 전면에 걸쳐 소개한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여성을 위한 '행복한 일터' LOTTE

기업 최초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롯데百, 유통업계 첫 '가족친화기업' 인증

연중기획 가정이 있는 직장

① 롯데그룹

롯데그룹은 가족친화경영의 일환으로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 조성에 전 계열사가 동참하고 있다.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가 행복하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각 계열사 별로 가족친화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기업중 하나다.

롯데그룹은 2012년 9월 기업 최초로 '자동육아휴직제도'를 도입했다. 출산전후 휴가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것. 현재 자유로운 육아휴직 활용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단계다. 남성 육아휴직도 적극 권장하고 있어 남성 육아휴직 신청도 꾸준히 늘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중 인터넷 재택교육을 통해 업무연속성 및 자기 개발도 지원한다. 2013년 5월부터 온라인 교육 사이트 'Talk Talk Mom(똑똑맘)'을 운영, 직장복귀 가이드, 여성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등 이러닝 학습을 지원하고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는 복직 전 준비사항에 대한 정보가 담긴 '육아휴직 복귀 플래너'를 배포, 1년 넘게 업무와 떨어져 있던 직원들의 복직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복귀 후 회사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복직 후 성공적인 업무 적응을 지원하는 '맘스 힐링' 교육도 진행한다.

롯데마트 임산부 유연 근무제

롯데그룹은 또 매년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와우(WOW: Way of Woman) 포럼도 실시하고 있다. 롯데그룹의 여성 리더십 포럼으로, 여성 인재 육성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고 여성 간부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2년 처음 마련됐다.

그룹 계열사별로도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들이 시행중이다.

롯데백화점은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지난 2009년 11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란 근로자가 업무와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경영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수여하는 제도다.

롯데는 또 2010년 3월에는 업계 최초로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롯데백화점 어린이집(종로구 재동)'을 개원해 운영 중이다. 임직원의 육아복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어린이집은 운영시간도 직원의 업무시간을 고려해 정했다. 백화점 운영시간인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문을 열고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다. 또 롯데백화점 본점과 어린이집 사이의 거리를 고려해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있다.

가정이 있는 일터 만들기

롯데그룹	자동육아휴직 제도
롯데백화점	임직원 자녀 대상 어린이집
롯데마트	임산부 유연 근무제 가족사랑 휴가 제도
롯데하이마트	가족초청행사
롯데제과	해님이 간다 이벤트
롯데닷컴	오후 5시 퇴근 '홈 데이'

롯데마트는 임산부 사원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근무하는 '임산부 유연 근무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임산부 유연 근무제는 임산부 직원이 임신을 안 시점부터 적용된다. 임산부 직원의 경우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출산 전에는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출산 후에는 육아와 관련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 직원들은 출근 시간을 오전 8시·9시·10시 중 편한 시간을 골라 출근하고, 퇴근은 출근 시간에 맞춰 오후 5시·6시·7시로 조정된다. 일선 점포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오전 8시부터 12시 사이에 출근해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에 퇴근하는 형식으로 근무시간을 정한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가족과 함께 문화생활 즐겨요"

롯데그룹은 가족과 함께 다양한 문화생활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롯데마트가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족사랑 휴가제도'는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재충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자 마련됐다. 여름휴가와는 별도로 연중 어느 때나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5일간 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하이마트는 매년 1회 직원과 가족을 초청해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에서 가족초청행사를 열고 있다.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애사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또 매달 1회 팀 간 직급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호프데이를 진행한다. 각자의 팀과 본인의 업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후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소통을 위한 자리를 갖고 있다. 이밖에 동호회 활동비 지원, 지점 정기휴무시 단합대회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롯데제과는 좋은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해님이 간다' 이벤트를 전개하고 있다. 이 이벤트는 매월 가족과 관련된 사연을 접수해 가족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제도다. '딸 아이 생일선물로 학교에 찾아가 급우들과 함께 파티를 열어 주면 좋겠다'는 소원을 비롯해 '둘째 아들이 심장 수술을 무사히 마쳤는데 가족 모두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다'는 소원 등이 이루어 졌다.

롯데닷컴 직원들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손꼽아 기다린다. 이날은 오후 5시에 퇴근하는 '홈 데이(Home Day)' 이기 때문이다. 이날 만큼은 일찍 퇴근해 가족과 함께 하자는 취지에서다. 조기 퇴근을 어긴 팀에는 사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는 등 불이익도 주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올해부터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정해 임직원들이 야근과 회식 없이 일찍 귀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오후 5시께 업무용 컴퓨터로 알림 메시지를 보내고, 오후 6시에는 임원과 팀장들이 직접 퇴근을 알리는 사내방송을 한다. 정시퇴근 인증샷 이벤트를 통해 팀 회식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김보라기자

튼튼한 국가 재정의 새로운 시작, 新GO!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신고상담** 국번 없이 ☎ 110
- **팩　　스** 02-2110-0678
- **인 터 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방문·우편**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2동 605호)

두부, 중기적합품목 재지정

국산 콩은 제외…업계 사업전략 수정 불가피

두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단, 국산 콩을 사용한 제품은 제외되며 CJ제일제당, 풀무원, 아워홈 등 대형 제조업체들은 담담한 표정이다. 하지만 사업 전략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반포대로 팔래스호텔에서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만기가 도래해 연장을 신청한 51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재합의 37건, 시장감시 4건, 상생협약 10건을 의결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대상 77개중 49개로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확정됐다. 두부를 비롯해 기업간 거래(B2B)용 원두커피, 도시락, 재생타이어, 간장, 고추장 등이 앞으로 3년간 적합업종으로 보호를 받는다.

두부의 경우 대기업은 포장두부 시장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을 점차 늘려가기 위해 추가 시장은 현 수준 내에서 확장을 자제해야한다. 또 비포장 두부시장 진입이 어렵게 됐으며 포장용 대형 판두부 시장에서는 철수해야 한다. 이번 권고의 적용 기간은 오는 2017년 11월 30일까지다.

두부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과 관련, 풀무원 관계자는 "중기적합업종에 재지정 돼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해온 것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풀무원의 경우 해외두부시장 공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미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판두부 시장에서는 철수했고 사업 확대도 자제해 현재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물량 확대는 안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재지정되면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보니 이미 해왔던 것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산 콩 소비에 대한 제한을 풀었기 때문에 국산 콩을 이용한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할 생각"이라면서 "국산 콩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소비 확대 차원에서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아워홈의 경우는 2010년 두부 공장을 짓고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2011년 두부가 중기적합업종에 제한되면서 매출액이 연간 20억원 수준으로 고정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두부시장은 다양한 신제품 출시가 이어지는 등 대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두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제조사들의 사업전략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두부 시장은 2011년 이후 포장두부(3700억원)와 비포장두부(1700억원)를 합쳐 연간 5400억원 수준에 멈춰 있다. 시장점유율은 풀무원이 약 50%, CJ제일제당이 20% 정도이며 그밖에 대상, 사조, 아워홈 등 대기업이 모두 80%를 차지한다. 중소기업은 20% 규모다.

두부는 2011년 대기업 진출이 제한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국산 콩 가격이 40% 이상 폭락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수입 콩에 비해 국산 콩을 사용한 제품이 3배 가량 가격이 비싸다보니 수요가 줄었다. /김보라기자

"이마트·롯데마트도 고객정보 불법판매"

서울YMCA 고발…650만건 유출, 100억원대 수익 의혹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경품행사에서 얻은 고객 정보를 보험사 등에 불법으로 팔아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서울YMCA에 따르면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수년간 경품이벤트를 벌이면서 대규모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 등에 넘기고 대가를 챙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두 업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YMCA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각 대형마트와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들을 분석해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4차례 경품행사를 벌여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000여건을 보험사에 넘겨 66억6800만원을 받았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매장과 온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건을 보험사에 넘겨 23억3000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있다.

서울YMCA 측은 "대형마트들은 공통적으로 경품을 미끼로 내세워 행사에 응모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개당 약 2000원에 팔아 넘겨왔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홈플러스에 대해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도성환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법인,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관계자 2명을 지난 1일 기소한 바 있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가방·주얼리까지 판다"… 변신 중인 속옷 업계

불황에 편집숍 매장·온라인 등 유통 강화

속옷 업계가 유통 다변화를 꾀하며 불황 타개에 나섰다. 내수 침체로 속옷 소비가 줄어든 데다 SPA(제조유통일괄) 브랜드가 속옷까지 영역을 확장하면서 기존 업체들이 고전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속옷 시장은 2013년 기준 1조8000억원 수준으로 전년 보다 1.1% 증가해 사실상 정체된 상황이다. 이에 속옷업계는 트렌드로 떠오른 편집숍처럼 매장을 구성하는 한편 온라인을 강화하는 업체도 있다.

BYC는 지난 23일 전주 완산구에 BYC마트 효자점을 열었다. BYC마트는 SPA형 복합매장으로 자사 브랜드를 비롯해 가방·신발 등을 위탁 판매하는 매장이다. 가장 매출이 높은 대림점의 경우 월 평균 매출이 3억~4억원에 달한다. BYC는 올해만 효자점을 포함해 3개 매장을 오픈했고 익산 포함 3곳에 매장을 추가할 계획이다.

남영 비비안은 젊은층에서 수요가 높은 라이프스타일숍을 표방한 'live 24 비비안'을 론칭하고 복합쇼핑몰에 입점시켰다. 백화점 매장 보다 4배 정도 넓은 40평 규모로 지난해 하반기 잠실 롯데월드몰과 코엑스몰에 잇따라 1, 2호점을 열었다. 거실·침실·욕실 등으로 구역을 나눠 테마별로 해당 공간에 어울리는 속옷을 제안한다. 향초·바디제품·주얼리도 함께 판매한다.

/남영 비비안 제공

좋은사람들의 경우 브랜드별로 있었던 온라인숍을 통합해 지난해 7월 새롭게 열었다. 보디가드·예스·리바이스 바디웨어 등의 전 브랜드 제품을 함께 판매한 이후 지난해 보다 매출이 10% 상승하기도 했다. 온라인 채널 강화와 함께 이달 경기도 죽전에 신규 복합매장을 여는 등 다각도로 유통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채널이 다각화되는 등 유통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속옷 시장이 다변화된 시장이 아니다 보니 변화를 줄 수 있는 곳이 매장이다"며 "다양한 제품을 모아 판매하는 편집숍에 수요가 높아 복합매장을 구성하려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롯데주류, 소주 칵테일 '처음처럼 순하리' 출시

롯데주류는 3월 초 유자과즙과 향이 첨가된 칵테일 '처음처럼 순하리'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처음처럼 순하리' 유자맛은 용량 360㎖에 알코올 도수 14도로 소주보다 낮다. 천연 유자 농축액과 유자향을 첨가해 유자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목넘김이 특징인 리큐르 제품으로 출고가는 962.5원이다.

롯데주류는 2013년 10월부터 1년간 4400여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향과 맛이 우수한 과실주에 대한 가격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점에 착안해 이 상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젊은 층과 여성층을 중심으로 낮은 도수의 주류 선호 현상이 확산하는 점을 고려해 소주류 제품보다 알코올 도수를 낮춘 14도로 제조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이 제품 출시로 처음처럼은 종전 '진한 처음처럼'(20도), '부드러운 처음처럼'(17.5도), '순한 처음처럼'(16.8도) 등 소주류 제품 3종을 포함해 총 4개의 통합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베이코리아, 창업 지원

이베이코리아는 판매고객 교육센터인 '이베이에듀'에 '5060을 위한 상품등록 실습' 강좌를 신설한다.

이 강좌는 최근 5060 은퇴자와 오프라인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판매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개설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참가자가 한 단계씩 직접 실습할 수 있게 유도하고 어려운 인터넷용어를 풀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등 수업진도를 조정했으며 1대1 코칭 시간을 제공한다. 또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반복수강을 가능하게 해 상품등록 절차를 완벽하게 습득 할 수 있게 매월 두 차례 서울 강남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신라스테이' 제주 진출

비즈니스호텔 '신라스테이'가 제주도에 진출한다.

신라스테이를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오는 3월 1일 국내 대표 관광지 제주시에 '신라스테이 제주'를 개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곳은 그랜드룸 객실을 포함해 총 301실 규모로 △뷔페 레스토랑(Cafe) △바(Bar) △피트니스 △미팅룸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GS샵, '에디티드' 론칭

GS샵은 패션업체 신세계인터내셔날과 손잡고 홈쇼핑 전용 여성의류 브랜드 '에디티드(EDITED)'를 출시한다.

'에디티드'는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과 패션을 편집해 나만의 개성 있는 스타일을 만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요 고객은 트렌드에 민감하면서도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30~40대 여성이다.

유방암 자가검진 중요

한국유방암학회 인식 실태조사… 매월 정기진찰 3.6% 불과

국내 여성 100명 중 단 4명만 정기적으로 유방암 자가검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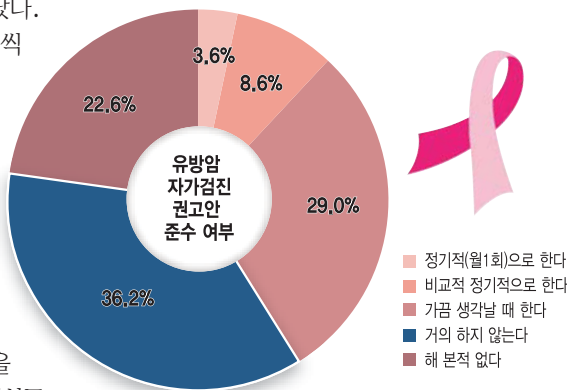
한국유방암학회(회장 윤정한·이사장 송병주)는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 여성 2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방암 인식 실태 분석'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22.6%는유방암 자가검진을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답했다.또 36.2%는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자가검진을 하는 여성의 비율은 3.6%에 불과했다.

유방암 자가검진 권고안 준수 여부

- 정기적(월1회)으로 한다 3.6%
- 비교적 정기적으로 한다 8.6%
- 가끔 생각날 때 한다 29.0%
- 거의 하지 않는다 36.2%
- 해 본적 없다 22.6%

아울러 유방암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여성도 많았다. 운동과 식이 등 건강한 생활습관만으로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여성이 절반 이상(52.0%)에 달했다. 게다가 10명 중 6명(57.5%)은 자가검진만으로도 정확한 유방암 진단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유방암 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병주 한국유방암학회 이사장(서울성모병원 유방센터장)은 "우리나라 30~40대 여성의 유방암 위험성은 큰 편이지만 이에 대한 인식은 미흡한 상황이다. 자가검진은 물론 목욕이나 마사지 등 일상생활에서 이뤄지는 유방 촉진에서 이상을 느낀 후 병원을 찾아 유방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매월 자가검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대명리조트 제공

올 겨울 마지막 스키를 즐긴다

비발디파크, '스프링시즌권' 출시

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 스키월드가 다음 달 15일까지 2014~2015 스프링시즌권과 다음 시즌 스키시즌권을 판매한다.

스프링시즌은 4월 초순까지로 스키월드에서는 모글스키와 레이싱 스키를 전용슬로프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나온 스프링시즌권은 '스프링시즌권(10만원)'과 '스프링플러스(15만원)'로 구성돼 있다. 특히 스프링플러스는 시즌권에 객실 이용권이 추가된 것으로 객실은 4월 30일까지 평일(일~금요일)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다.

또 다음 시즌 스키시즌권은 3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이번 시즌 스프링시즌권 혜택이 포함돼 있어 스키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게다가 4월 말까지 2만원 균일가로 오션월드에 입장할 수 있고 1만원을 추가 지불하면 주중 객실 이용도 가능하다.

/황재용기자

강강술래, 가정간편식 '갈비탕·육개장' 출시

출시 기념 30% 할인 판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가정이나 야외에서 쉽게 즐길 수 있으며, 실온에서 장기 보관이 가능한 가정간편식(HMR) 갈비탕과 육개장을 출시했다.

신상품 '늘봄 갈비탕'은 부드러운 소갈비에 건강에 좋은 인삼과 홍삼을 넣어 맑고 진한 갈비탕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소고기 함량이 10%인 '늘봄 육개장'은 든든한 한끼 식사로 좋다.

2종 모두 레토르트(무균충전포장) 방식을 적용해 상온에서 9개월 동안 보관이 가능하며,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직접 냄비에 붓고 끓이거나 봉지 째 데워 바로 먹을 수 있다.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이달 28일까지 전 매장과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갈비탕 선물세트(500㎖·7팩·14인분)는 3만9500원에, 육개장 선물세트(500㎖·7팩·14인분)는 2만90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한편 100% 한우로 우려내 맛이 진하며 면역력 증진과 기력 보충에 좋은 한우사골곰탕(500㎖·10팩·20인분)도 약 50% 할인된 3만6000원에 판매한다.

이 외에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10봉·4만2000원)와 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X3팩·2만9400원), 칠칠한우떡갈비(360gX3팩·4만6200원)도 각각 30%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다.

봄방학을 맞은 아이들 간식으로 잘 어울리는 통등심돈가스(3박스·2.16kg)는 3만600원, 모짜렐라돈가스(3박스·2.16kg)는 3만6000원에 각각 40% 할인한다.

/김수정기자 ksj0215@

여성세정제, 제대로 알고 쓰자!

올바른 선택·사용법이 건강 좌우

여성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여성세정제가 출시되고 있다. 기존의 액상 타입뿐만 아니라 스프레이나 폼 등 여러 유형의 제품이 시중에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정제는 여성의 민감 부위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라 보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여성세정제는 크게 드럭스토어나 로드숍에서 구입할 수 있는 화장품 여성세정제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여성세정제로 구분된다. 중요한 것은 여성 민감 부위의 관리와 질환 예방을 위해 질환의 원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질 내 산성환경을 유지해 유익균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매가 편리하고 향이 좋다는 이유로 화장품 여성세정제를 고르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제품의 성분과 사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질 내 산도의 균형을 깨뜨리는 알칼리성 비누나 바디클렌저도 피하는 것이 좋다. 만약 질염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 개선을 위해 의약품 여성세정제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천은경 미즈메디병원 강남점 산부인과 전문의는 "여성의 민감한 부위는 우리 신체 중 생활환경의 변화나 스트레스, 건강 상태 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 중 하나다. 한국먼디파마의 '지노베타딘'과 같이 실질적으로 증상의 개선과 질환 예방 효과가 있는 제품을 평소에 사용하는 것이 여성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변정수의 판도라 다이어트' 특별 할인전

뉴트리, 다음달 13일까지 NS홈쇼핑서 최저가 판매

건강기능식품 전문업체 뉴트리(대표 최미회)가 한국인 맞춤형 다이어트 제품인 '변정수의 판도라 다이어트'의 특별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체지방 감소와 피부 건강 두 가지 기능을 인정받은 기능성 다이어트 식품으로 방송인 변정수가 제품을 직접 체험한 후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회사는 주원료인 판두라틴이 한국과 미국, 일본 등에서 특허를 받는 등 그 효과를 인정받았으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를 통해 제품이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또 행사는 다음 달 13일까지 NS홈쇼핑에서 이어지며 기존 판매가에서 30% 이상 할인된 가격(11만300원)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평생기술 배우니 취업걱정 없어요"

이국명 기자의 취업토크

이승근 전문대교육협 기획조정실장

높은 취업률 전문대 인기 '쑥쑥'
현장 중심 직업 교육 내용 알차
4년제 졸업생 '유턴입학'도 급증

"전문대는 개발되지 않은 채 묻혀져 있는 에너지입니다. 전문대에 입학해 스스로가 지닌 에너지를 발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면 평생직장이 사라진 요즘시대에도 프로로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승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 소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말고 '일하는 대한민국의 힘'인 전문대에서 꿈을 펼치라고 강조했다. 현장 중심의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갈수록 높아지는 취업관문을 4년제 대학보다 쉽게 뛰어넘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취업률만 비교해도 4년제 대학(189곳)은 54.8%에 그친 반면 전문대(139곳)는 61.4%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높아진 취업률 덕분에 인식도 크게 개선돼 4년제 대학을 나온 뒤 전문대에 다시 들어가는 이른바 '유턴 입학'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 4500여명이던 유턴입학 지원생이 지난해에는 4980여명까지 증가했고 실제로 전문대에 등록한 입학생은 1100여명에서 1300여명으로 급증했죠. 직업교육에 특화한 전문대의 차별화된 교육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대 수업연한 다양화도 추진

실제로 전문대에는 한국승강기대, 아주자동차대, 골프대, 농협대 등 이름만 들어도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 수 있는 대학들이 많다. 과학수사과, 함정기술과, 재활승마과, 언어재활과, 웨딩플레너과, 카툰애니메이션과 등 직무에 특화된 이색학과도 다양하다. 특히 기업체의 요구에 따라 반도체과, 컴퓨터응용기계과 등도 신설·운영되고 있다.

정부도 전문대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문대를 고등직업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전문대 수업연한을 현행 2~3년에서 1~4년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문대 수업연한 다양화'도 추진 중이다.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들과 같이 전문대의 학제를 1~4년으로 스펙트럼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카트로닉스, 외식경영, 자동차 등은 2, 3년 교육만으로는 부족하죠.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직업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수업연한 다양화는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믿습니다."

◆7월말 전문대학 엑스포 개최

이같은 자신감은 전문대가 우리나라에 기여한 역할이 일반인의 상식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이다. 1979년 처음 설립된 이후 전문대 졸업생은 560만 명을 넘었다. 전문대 졸업생이 산업인력으로 활약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도 불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현재도 고등교육기관의 40%가 전문대이고 입학정원의 37%가 전문대생이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이같은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2013년 처음 시작해 8만 명의 관람객을 모은 '전문대학 엑스포'는 지난해에 무려 12만명의 학생·학부모 등이 운집할 정도로 성장했다. 올해는 서울 코엑스에서 7월30일부터 8월2일까지 전문대에 대한 소개는 물론 입시·입학상담까지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입학정보 센터를 통해 진학상담을 하고 전문대 입학정보포털도 구축할 방침이다.

"4년제 대학이 비싼 제품을 다양하게 파는 백화점이라면 전문대는 필요한 물건만 갖춰 놓은 편의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이 전문대에서 배운 기술을 토대로 '샐러리맨 연봉 신화'를 이뤘을 정도로 교육 내용도 탄탄하죠. 평생 살아갈 수 있는 명품기술을 배우길 원한다면 전문대의 문을 자신있게 두드리세요."/사진=손진영기자 son@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삼성·LG 취업문 열렸지만…

작년보다 10% 감소할 듯

<500대기업 올해 채용 계획>

	있음	없음	미정
유통/무역	70.8%	12.5%	16.7%
석유/화학	70%	16.7%	13.3%
전기/전자	61.3%	32.3%	6.4%
금융	61%	17.1%	22%
건설	58.3%	16.7%	25%
공기업	55%	20%	25.5%
자동차	54.8%	32.3%	12.9%
IT/정보통신	50%	28.6%	21.4%
식음료/외식	45.5%	27.3%	27.3%
조선/중공업	40%	30%	30%

주요 대기업들이 상반기 공채 일정을 확정하면서 취업 시장이 가열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대기업 공채 규모는 지난해보다 10% 감소한 수준으로 취업 문은 더욱 좁아졌다.

24일 취업 업계에 따르면 그룹사 상반기 공채는 LG그룹이 시작한다. LG그룹은 다음달 4일부터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2000여 명을 모집한다. 구직자는 그룹 통합 채용포털인 'LG 커리어스'에 접속해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한 사람당 최대 3개 계열사까지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삼성그룹은 다음달 중순부터 상반기 대졸 공채를 시작한다. 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달 셋째주가 유력한 가운데 '취업 고시'로 불리는 삼성그룹 필기시험(SSAT)은 4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이밖에 SK그룹은 다음달 2일부터 상반기 원서 접수를 받으며 4월 26일 필기시험을 진행한다. 현대자동차그룹도 다음달 중 상반기 공채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자세한 일정은 미정이다.

◆ 대기업 신입 공채 10% 감소

대기업이 속속 상반기 공채 일정을 확정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못할 전망이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측은 "올해 대졸 신입직을 선발하는 175개 기업 채용인원은 1만4029명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지난해 신규 채용 규모 총 1만5610명보다 10.1% 감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조선·중공업이 전년 대비 채용 규모가 23.5%나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상대적으로 대졸 신입 채용 규모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 분야는 전기·전자 업종이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기업 316곳을 설문한 결과 올해 대졸 신규 공채를 진행하는 기업은 55.4%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24.4%의 기업은 신규 채용 자체가 없다"며 "지난해보다 올해 신입직 대졸 공채 시장은 불투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윤희기자 unique@

내 일자리 어디에 24일 서울 중구 필동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2015년 봄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이 취업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실무에 필요없는 스펙 쌓기

구직자 비정상 취업 준비 1위

구직자 10명 중 8명은 문제점을 알면서도 과도한 취업 준비에 매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24일 구직자 874명을 대상으로 '취업시장에서 비정상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조사한 결과, '실무에 필요 없는 스펙 쌓기'(54.3%)가 1위에 올랐다.

2위와 3위는 각각 '불필요한 직무에서 영어 실력 우대'(48.7%)와 '고학력 구직자 증가'(35.4%)가 선정됐다. 이밖에 '연수 등 해외경험 필수로 인식'(34.2%), '대기업만 바라며 장기 구직'(30.5%), '무리한 취업 사교육'(25.9%) 등이 거론됐다.

한편 응답자의 81.8%는 자신도 비정상적인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1위는 '실무에 필요 없는 스펙 쌓기'(38.2%·복수응답)였으며 2위는 '대기업만 바라며 장기 구직'(21.1%)이었다. 비정상인 것을 알면서도 행동한 이유로는 '그래야 취업할 수 있어서'(31.8%)와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31.5%) 등이 주를 이뤘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인 52.2%는 '앞으로도 비정상적인 구직 활동을 계속 할 것'이라고 답해 씁쓸함을 자아냈다. /장윤희기자

metro entertainment

"고난도 안무 담은 '표적'… 신화 답다"

정규 12집 'We'로 돌아온 신화

많은 팬들이 기다렸다. '국내 최장수 아이돌 그룹' 신화가 정규 12집 '위(WE)'를 26일 발표한다. 정규 11집 '더 클래식(The Classic)' 이후 1년 9개월만이다. 이번 컴백은 당초 예상보다 몇 개월 늦어졌다. 멤버들 각자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등에 꾸준히 얼굴을 비췄지만, 팬들은 6명이 모두 모인 '완전체'를 원했기 때문이다. 신화는 "가장 신화다운 앨범이다. 타이틀곡 '표적'은 제 2의 '브랜드 뉴(Brand New)'같은 곡"이라며 오랜 준비기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데뷔 17년차… 컴백은 언제나 떨리는 일 최장수 아이돌 그룹은 자랑스러운 타이틀

◆ 가장 신화다운 앨범

올해로 데뷔 17년차다. 정규앨범만 무려 12장이다. 아이돌 그룹으로선 모두 신화가 처음 세운 기록이다. 신화는 "회사를 다녔다면 이제 부장급인가요? 저희가 오래하긴 했어요"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하지만 베테랑 신화에게도 컴백은 긴장되는 일이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첫 방송을 해야 실감날 것 같네요. 조급해하지 않고 앨범 작업에 공을 들였어요."(동완)

"제가 지난해 말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컴백이 미뤄진 부분도 있어요. 리더로서 할 일을 민우에게 맡겨서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민우를 도울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안한 것도 있어요. 모든 걸 민우의 공으로 남기고 싶었거든요."(에릭)

평균 나이는 36.5세다. 전진은 한 방송에서 '나이가 들어 격한 안무를 못 하겠다'고 말해 웃음을 안기기도 했다.

"격한 안무가 아니라 위험한 안무를 못 하겠다고 한 거죠. 예전엔 다소 위험하기도 한 춤을 췄는데 이젠 좀 조심해야겠다는 의미예요."(혜성)

타이틀곡 '표적'은 신화에게 가장 많은 트로피를 안겨준 '디스 러브(This Love)'와 '비너스(Venus)'를 작곡한 앤드류 잭슨과 작곡팀 런던노이즈가 함께 작업했다. 화려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신화답게 '표적'에서도 각 멤버들의 매력을 살리는 맞춤형 안무를 준비했다.

"안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파스 붙이고 연습했죠. 전진의 관절이 걱정될 정도예요. '표적'이 제 2의 '브랜드 뉴'라고 했지만 다른 점도 있어요. 예전 앨범이 프로듀서의 작품이라면 이번 앨범은 100% 저희의 손으로 만들었죠."(동완)

"신인 남자 그룹이 지금 저희처럼 여유로운 무대를 하면 건방져 보일 수도 있죠. 반대로 저희가 데뷔곡 '해결사' 때처럼 하면 애쓰거나 버거워 보일 것 같아요(웃음). 하지만 '디스 러브'때보단 파워풀해요. 민우가 안무를 준비할 때 늘 고심해요. 신화의 느낌을 가져가면서 새로운 모습도 보여드려야 하니까요."(에릭)

"신인 땐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보단 회사의 의도를 많이 따라갔죠. 이젠 연차도 쌓였고 저희도 능력을 갖췄으니 신화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 같아요."(혜성)

◆ 장수비결은 팀워크

지난해 불법스포츠도박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앤디는 인터뷰에 앞서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원조 예능돌' 신화에겐 다소 어울리지 않는 무거운 분위기가 맴돌았다. 그러자 전진은 "시간상 여유가 안 돼서 (앤디를) 채찍질 못했다"고 농담을 던져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힐링캠프' 녹화 후 진이네 집에 가서 술 한 잔 씩 하며 오랜만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어요. 서로 칭찬도 해주고 서운한 점도 이야기 했죠. 고해성사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어요."(에릭)

혜성은 민우가 앨범 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고맙다고 했다. 전진은 휴식기를 갖거나 개인 활동을 할 때면 시끌벅적한 멤버들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고 했다. 떨어져 있어도 멤버들은 언제나 신화가 1순위라고 했다. 장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최근 많은 아이돌 후배들이 신화를 롤모델로 꼽고 있다는 말에 전진은 "17년이 정말 금방 흘러갔다"며 "앞으로 더 오래, 열심히 해야겠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저희가 최장수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지만, 아이돌 평균 수명 자체가 그리 길지 않아요. 다들 좀 더 오래 활동했으면 좋겠어요."(혜성)

신화는 차트 1위부터 음악 방송 트로피 석권, 대상 수상까지 가수로서 많은 것들을 이뤘다. 더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

"최장수 아이돌 그룹이란 타이틀이 참 자랑스럽죠. 이제까지 잘 해왔으니, 일 자체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활동하고 싶어요. 멤버들의 건강과 마음이 앨범 성과보다 더 중요하니까요."(에릭)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디자인/박은지

star bag

드라마 '블러드' OST 참여

소녀시대 **티파니**가 KBS2 월화드라마 '블러드' OST에 참여했다. 제작사 더그루브엔터테인먼트는 티파니가 노래한 '블러드'의 삽입곡 '온리 원(Only One)'을 24일 정오 공개했다. '온리 원'은 감성적인 보이스와 화려한 리듬이 돋보이는 팝 발라드 곡이다. 히트작곡가 박수석과 박은우가 공동 프로듀싱했다.

데뷔 10주년 기념 싱글 발표

가수 **이루**가 오는 26일 데뷔 10주년 기념 싱글 프로젝트 '이루 10th Project'의 두 번째 곡 '가로수길'을 발표한다. 이번 신곡엔 럭키제이의 멤버 제이요가 참여했다. 24일 소속사가 공개한 티저 영상은 피아노를 연주하는 이루의 모습과 세련된 어반 댄스를 추는 제이요의 모습이 교차 편집돼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3년 만에 스크린 컴백

배우 **강지환**이 영화 '태양을 쏴라'로 3년 만에 스크린에 컴백한다. 미국 LA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두 남자와 한 여자의 꿈과 희망, 사랑과 배신을 그린 느와르 장르다. 강지환은 평범한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걸 걸어야만 하는 존을 연기했다. 존과 사랑에 빠지는 재즈 보컬리스트 사라는 윤진서가 맡았다. 3월 개봉 예정.

청순함 벗고 첫 단독 화보

걸그룹 에이핑크의 **윤보미**가 첫 개인 화보에 도전했다. 최근 패션지 얼루어 코리아와의 화보 촬영에서 윤보미는 에이핑크의 순수하고 귀여운 모습에서 벗어나 성숙하고 세련된 여인으로 변신했다. 소속사 에이큐브는 "올 봄·여름에 유행할 빈티지 플라워 패턴의 의상을 입어 감각적인 이미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얼굴만 보고 음치 가린다

가수 김범수 첫 MC 도전

가수 김범수가 얼굴만 보고 음치를 선별한다.

김범수는 엠넷 '너의 목소리가 보여'로 데뷔 후 처음 진행을 맡았다.

방송은 얼굴만 보고 실력자인지 음치인지를 가리는 음악 추리쇼다.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음치여도 최후의 1인이 되는 역발상 프로그램이다.

엠넷 '너의 목소리가 보여' 김범수. /손진영 기자son@

24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김범수는 "가수의 얼굴을 말하면서 나를 빼면 안 된다"며 "내 앨범 사진을 놓고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걸 듣고 감동 받았다. 성패를 떠나서 내 프로그램 같아 정감이 느껴진다"고 소감을 전했다.

함께 호흡을 맞추는 개그맨 유세윤은 이날 "여러 부류의 가수 출신 MC가 있다"며 "김범수는 아직 노래만큼 진행을 잘 하진 못한다. 노래를 지나치게 잘하는 걸 수도 있고 진행을 지나치게 못 하는 걸 수도 있다"고 김범수의 진행 실력을 평가해 웃음을 자아냈다. 26일 오후 9시40분 첫 방송. /전효진기자

신현준, 킬러로 손예진과 호흡

中 영화 '나쁜놈은…' 캐스팅

배우 신현준(사진)이 중국 영화 '나쁜놈은 반드시 죽는다'(가제)에 캐스팅됐다고 24일 소속사 HJ 아티스츠가 전했다.

'나쁜놈은 반드시 죽는다'는 중국 최대 엔터테인먼트 그룹인 화이브라더스가 투자와 배급을 맡고 뉴 파워 필름이 제작하며 한국의 강제규 감독과 중국의 평샤오강 감독이 총제작(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로 참여한다.

신현준의 캐스팅은 평샤오강 감독의 적극적인 추천, 그리고 '은행나무 침대'로 함께 작업했던 강제규 감독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성사됐다. 신현준은 "평샤오강 감독의 팬이다. 좋아하는 감독 두 분과 함께 작업하게 돼 영광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나쁜놈은 반드시 죽는다'는 중국인 젊은 남자와 그 친구들이 미스터리한 한국 여성을 제주도에서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액션 블랙코미디 영화다. 신현준은 카리스마 넘치는 킬러 역을 맡았다. 한국 여성은 손예진이, 중국인 남자는 프랑스도빌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진백림이 연기한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국 올로케이션으로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록·컨트리·힙합 한자리에

김창완밴드·정기고·에디킴 등…레인보우 아일랜드 라인업 발표

김창완밴드(사진)·정기고·에디킴·그레이&로꼬 등 다양한 장르의 선후배 가수가 한 자리에 모인다.

'레인보우 아일랜드 2015 뮤직&캠핑'(이하 '레인보우아일랜드')의 주최사 VU ENT는 "지난해 헤드라이너였던 김창완밴드가 한 번 더 출연을 결정했다"며 1차 라인업을 24일 공개했다.

이번 라인업에 포함된 정기고는 4년 연속 출연이다. 최근 새 앨범을 발표하고 활발히 활동 중인 에디킴과 감각적이고 세련된 사운드의 힙합 아티스트 그레이와 로꼬도 함께한다. 바버렛츠, 박새별, 술탄오브디스코, 김간지X하헌진, 신나는섬, 기린, 소심한 오빠들, 읍란소년, 에스꼴라 알레그리아 등도 무대에 오른다.

'레인보우 아일랜드'는 음악과 캠핑, 레크레이션이 어우러진 MT형 페스티벌이다. 음악이 주가 된 다른 페스티벌과 달리 크레레이션게임, 명랑운동회, 플리마켓 등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오는 6월 20~21일 이틀간 강원도 춘천시 남이섬에서 개최된다. /김지민기자 langkim@

채시라

김희선

김성령

봄, 안방극장은 '여인천하'

'착하지…' 채시라·'앵그리 맘' 김희선·'여왕의 꽃' 김성령 모성애 자극

채시라·김희선·김성령, 이름만으로도 묵직한 존재감을 보이는 여배우들이 3월 안방 시청자를 만난다. 남성 중심이 아닌 모성애를 이야기한다.

김혜자·채시라·도지원·이하나가 출연하는 KBS2 새 수목극 '착하지 않은 여자들'은 엄마와 딸, 손녀까지 3대에 걸친 착하지 않은 여자들의 사랑과 성공, 행복 찾기를 담은 작품이다. 김혜자는 1대 강순옥 역을 맡았다. 김현정(도지원)·김현숙(채시라) 자매의 엄마다. 특히 둘째 딸 김현숙은 사고뭉치다. 채시라의 파마머리와 억척스러운 모습이 기대를 모은다. 이하나는 김현숙의 딸 정마리 역을 맡아 뒤늦은 사춘기를 겪는다. 유현기 감독은 "요즘 여자가 서브 주인공을 맡는 게 주류다. 반대로 하자고 드라마를 만든 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가족의 근간이 되는 여성과 그들의 성장담이 새로운 아이템이라 생각한다"고 작품을 소개했다. 이달 25일 첫 방송.

김희선은 MBC 새 수목드라마 '앵그리맘'으로 채시라와 동시간대 경쟁을 한다. 김희선은 작품에서 날라리 여고생 출신 엄마 조강자 역을 맡았다. 고등학생으로 위장해 국어교사 박노아(지현우)와 비리로 얼룩진 학교 재단의 비밀을 파헤친다. 담벼락을 넘고 찰진 욕을 하며 불량한 끼를 간직한 엄마로 변신했다. 작품은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통쾌활극이다. '킬미 힐미' 후속으로 내달 중 방송된다.

김성령·이성경·김미숙은 MBC 주말극 '전설의 마녀' 여성 파워를 이어갈 예정이다. 내달 14일 첫 방송되는 '여왕의 꽃'은 야망으로 가득 찬 여자가 자신이 버린 딸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는다. 냉정하고 차가운 셰프 레나정(김성령), 온화한 척하지만 섬뜩한 여자 마희라(김미숙), 상큼한 미소가 매력인 이솔(이성경) 세 여배우의 조화가 잘 어우러진다는 평가다. 데뷔 후 처음 여주인공이 된 김성령은 "또래 중년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드라마가 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욕망 자극하는 판타지

수위 높은 섹스 신·디테일한 감정 묘사 '눈길'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는 익숙한 신데렐라 스토리의 영화다. 그 중심에는 토마스 하디의 '테스'를 좋아하는 수수한 처녀 아나스타샤(다코타 존슨)와 27세 젊은 나이에 굴지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CEO 크리스찬 그레이(제이미 도넌)의 로맨스가 있다. 독감에 걸린 룸메이트를 대신해 그레이의 인터뷰를 하게 된 아나스타샤는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가득한 그레이의 매력에 단번에 사로잡힌다. 로맨스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운명적인 첫 만남이다.

문제는 이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남다르다는 것이다. 그레이는 아나스타샤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 그녀의 곁을 지켜주고, 직접 헬기를 조종하며 아름다운 야경을 선물하며, '테스'의 초판본과 노트북, 자동차 등을 선물하면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러나 아나스타샤가 마음을 여는 순간 그레이는 오히려 강하게 경고한다. "나는 사랑을 나누지 않아. 거칠게 섹스를 하지." 순조롭게 흘러가던 두 남녀의 로맨스는 이제 욕망의 경계에선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된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의 원작 소설이 출간됐을 때 많은 이들은 '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은밀하고 자극적인 섹스 장면의 묘사 때문에 '엄마들의 포르노'라는 별칭까지 생겨났다. 그것은 그레이의 남다른 성적 취향에서 기인한다. 완벽에 가까운 남자가 사실은 SM 플레이를 즐기는 독특한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뻔한 신데렐라 스토리를 특별하게 만든다. 남들처럼 평범한 연애를 바라는 아나스타샤와 가학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레이의 갈등은 일탈을 꿈꾸는 이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구석이 있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답게 영화 속 섹스 신의 표현 수위는 상당하다. 그러나 영화는 두 남녀의 감정 변화 또한 디테일하게 담아냄으로써 자극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다만 시종일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그레이의 캐릭터는 속편을 위한 설정임에도 다소 답답하게 다가온다.지배와 복종으로 이뤄지는 SM 플레이가 소재라는 점도 보는 이에 따라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 로맨스 장르가 지닌 욕망의 극대화다. 에로티시즘으로 포장돼 있지만 그 속에는 결국 욕망을 자극하는 판타지가 숨어 있다. 청소년 관람불가. 2월 26일 개봉.

모으면 모을수록 대박 혜택!

혜택 가득한 자유

하나 Free

자유여행을 쉽고 편하게 준비하는 방법
"하나Free" 혜택!
모으면 모을수록 커지는 대박 혜택을
꼼꼼히 챙기고 많은 혜택 누리세요~!

▶ **혜택 UP** | 하나Free 상품 동시 구매 혜택!

하나Free상품	할인혜택	마일리지혜택
자유여행만들기: 해외호텔 + 항공권 + 현지투어 + 패스/입장권	최대 30%	
항공권 + 해외호텔	최대 7% 료칸, ibis, Adagio 호텔체인 할인제외, 항공 출발 날짜와 동일한 호텔예약 1건에 해당함(항공, 호텔 동일 명단)	5,000 마일리지적립 추가적립
항공권 + 현지투어 + 패스/입장권	현지투어 3%/ 패스 3%/입장권 3% 현지투어, 패스, 입장권은 항공권 예약후 1주일 내 추가 예약까지 할인 적용	5,000 마일리지적립 추가적립
해외호텔 + 현지투어 + 패스/입장권	현지투어 3%/ 패스 3%/입장권 3% 현지투어, 패스, 입장권은 항공권 예약후 1주일 내 추가 예약까지 할인 적용	총금액의 1% 마일리지 추가 적립 최대 5,000 마일리지

혜택 조건

- 하나투어닷컴을 통한 온라인 예약에 한해 혜택을 드립니다.
- 동시구매는 반드시 같은날 자정 이전에 모든 예약을 하셔야만 혜택이 적용됩니다.(단, 해외호텔 할인 적용은 예약일자와 무관함)
- 할인혜택은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전화로 할인 요청을 하셔야만 할인 적용됩니다.(단 자유여행만들기의 상품 조회시 가격은 이미 할인 적용된 가격임)
- 하나투어마일리지클럽에 가입하셔야만 마일리지 적립을 받으며 예약코드당 예약자 한 분에게만 적립됩니다.
- 추가 마일리지 적립은 상황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나, 항공출발일 및 호텔투숙일 기준으로 그 다음달 15일 이전에 적립됩니다.
- 현지투어, 패스, 입장권은 최대 할인율로 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할인 프로모션 상품은 중복할인 불가합니다.
- 항공권 동시 구매시 10%할인이 2015년 1월부터 7%할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약문의 |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 **1566-0223**

www.hanatourist.com

■ 여행상품 가격포함 : 유류할증료(발권일/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식사요금 등 필수경비 모두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가이드/기사경비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고) ■ 선택경비(관광) : 있음/없음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고 ■ [안전경보단계] ❶여행유의 ❷여행자제 ❸철수권고 ❹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2015.2.17. 업데이트 기준) ■ [비자]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 ■ [매너팁]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음. ■ 본 여행상품은 (주)하나투어리스트에서 판매하고 실제 여행주관은 (주)하나투어가 담당합니다. ■ (주)하나투어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 1993-000006호(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하나투어 빌딩/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주)하나투어리스트 : 일반여행업 등록 2002-3호(서울시 종로구청)/영업 보증보험 5억 5천만원 가입 ■ 고객칭찬/불편접수 :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9번) ■ 최소 출발인원 : 10명 기준 ■ 호텔 : 2급호텔 이상 2인 1실 사용 ■ 교통편 : 항공/버스/훼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신수 캠프 방망이 '굉음'

텍사스 타자 4인방 먼저 훈련…"올 시즌 기대해도 좋다"

'추추 트레인'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스프링캠프에 합류해 본격적인 실전 모드에 돌입했다.

추신수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 주 서프라이즈 스타디움에서 열린 팀의 스프링캠프에서 애드리안 벨트레, 프린스 필더, 미치 모어랜드 등 주축 타자들과 함께 타격 연습을 했다.

톱타자이자 3번 타자로도 중용될 것으로 보이는 추신수는 그동안 체력 훈련을 통해 다져진 근력을 과시하며 방망이를 휘두를 때마다 장쾌한 굉음을 냈다. 이어 벨트레, 필더, 모어랜드 등 중심 타자들도 컨디션을 조율했다.

사실 이들 '텍사스 타자 4인방'은 선수단 전체 훈련일인 25일보다 일찍 캠프에 합류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팀 관계자들을 흐뭇하게 했다.

특히 추신수는 지난해 8월 왼쪽 팔꿈치, 왼쪽 발목을 잇달아 수술해 일찌감치 시즌을 접고 11월부터 텍사스 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올 시즌을 대비한 재활 훈련을 해왔다.

그는 "지난해부터 훈련으로 구슬땀을 흘렸기 때문에 3월4일 시범경기 직전까지 열리는 스프링캠프 훈련은 그 연장선에 있다"며 "늘 준비해오던 대로 똑같이 올 시즌을 맞이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나를 포함해 내야수 엘비스 안드루스, 투수 다르빗슈 유와 데릭 홀랜드 등 약 10명의 선수가 지난 겨울, 날마다 야구장에 나와 훈련했다"면서 "특별한 전력 보강은 없었지만 선수들이 남다른 투지로 똘똘 뭉쳐 지난해보다 나은 성적을 올릴 것"이라고 자신했다.

추신수는 또 "메이저리그에서 나보다 더 많이 뛴 선수를 팀내에서 찾기 어려운 연차에 왔다"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솔선수범하면 누구든 따라오지 않겠느냐"고 리더로서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 스타디움에서 타격 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LPGA '코리안 파워' 더 세졌다

'슈퍼 루키' 김효주 26일 혼다 타일랜드로 데뷔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개막전부터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코리안 골퍼'의 파워가 더욱 막강해 졌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를 평정했던 '슈퍼 루키' 김효주(20·롯데·사진)가 드디어 LPGA 투어 공식 데뷔전을 치른다. 무대는 26일부터 나흘간 태국 촌부리의 시암 컨트리클럽 파타야 올드코스(파72·6548야드)에서 열리는 혼다 LPGA 타일랜드(총상금 150만 달러)다.

지난해 KLPGA 투어에서 상금(12억897만원), 평균타수(70.26타), 대상(610점) 등 주요 부문을 휩쓸었던 김효주는 9월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올해 LPGA 투어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데뷔전이 미뤄진 이유는 지난해 12월 시력교정 수술을 받아 전지훈련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LPGA 투어는 이미 한 차례 우승을 차지한 김세영(22·미래에셋)을 비롯해 장하나(23·비씨카드), 에리야 쭈타누깐(태국), 호주교포 이민지 등 신인들의 돌풍이 거세다. 이들에 비해 다소 늦게 데뷔전을 치르게 된 김효주가 얼마나 빨리 신인왕 경쟁에 뛰어들게 될지 관심이다.

뉴질랜드 교포로 세계 랭킹 1위인 리디아 고는 자국에서 열리는 유럽여자프로골프 투어(LET) 뉴질랜드오픈에 출전하느라 이 대회에 나오지 않지만 2위 박인비(27·KB금융그룹)를 비롯해 최나연(28·SK텔레콤), 미셸 위(26·나이키골프) 등 스타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코리안 골퍼'의 우승 행진이 이어질지 관심이다. /김민준기자

'예비 아빠' 기성용 '행복한 비명'

EPL 26R 베스트 11 뽑히며 최고 전성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스완지시티에서 뛰는 '예비 아빠' 기성용(26·사진)이 최고 전성기를 뽐내고 있다.

기성용은 24일(한국시간) EPL 사무국이 공개한 2014-2015 시즌 26라운드 베스트 11의 미드필더로 뽑혔다.

기성용은 지난 22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와의 홈경기에서 전반 30분 1-1을 만드는 동점골이자 자신의 시즌 5호 골을 터뜨려 스완지시티의 2-1 역전승에 앞장섰다. 5골은 박지성이 2006-2007시즌, 2010-2011시즌 기록한 바 있는 한국 선수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 골 타이 기록이다.

그동안 유럽 무대에서 꾸준한 활약을 보인 기성용은 올 시즌 해결사로서 능력까지 더했다. 경기 조율에 더해 점차 공격 성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즌 개막전이던 맨유전에서 시즌 1호 골을 꽂아 넣으며 대활약을 예고한 그는 지난해 12월 퀸스파크 레인저스, 헐시티와의 경기에서 각각 골을 넣었다.

지난달 국가대표로 아시안컵에 참가해서도 주장으로 대표팀을 이끌며 '슈틸리케호'의 중심을 잡았다. 아시안컵 이후에도 곧바로 팀에 복귀해 이달에만 2골을 뽑아냈다.

소속팀, 대표팀 가릴 것 없이 맹활약을 펼치는 기성용은 특히 아내 한혜진의 임신 소식까지 전하며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김민준기자

2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0회 코카콜라 체육대상에서 리듬체조의 손연재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후 세리머니로 걸그룹 오렌지카라멜의 까탈레나춤을 추고 있다. /연합뉴스

코카콜라 체육대상 MVP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1·연세대)가 24일 열린 2015 코카콜라 체육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선수상(MVP)을 받았다.

손연재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리듬체조 사상 최초로 개인전 금메달과 단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국제체조연맹(FIG) 리스본월드컵에서 사상 첫 개인종합 우승 등 4관왕에 올랐고, 터키 이즈미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후프 동메달을 따며 한국 리듬체조 역사상 첫 세계선수권 메달을 장식했다.

남녀 우수선수상은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레슬링 김현우(27·삼성생명)와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등 총 6개 메달을 휩쓸면서 인천 아시안게임 최다관왕을 기록한 볼링 이나영(29·대전시청)에게 각각 돌아갔다. /김민준기자

도넘은 미투 화장품

기자 수첩

김 수 정
<생활유통부 기자>

화장품 업계가 디자인이나 성분이 유사한 이른바 미투 제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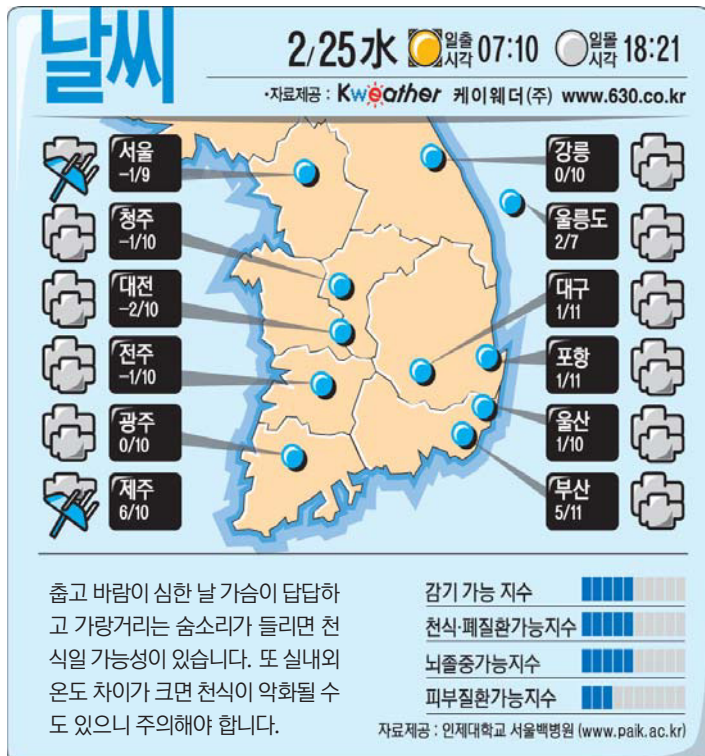
최근 화두로 떠오른 글로벌화장품 로레알이 국내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제품과 유사한 '랑콤 미라클 쿠션'을 프랑스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아모레퍼시픽이 고심에 빠졌다. 쿠션 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이 '주차 도장'에서 착안해 만든 자체 기술로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인지도를 갖춘 로레알이 모방 제품을 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법무실 조직개편까지 단행하며 자사 기술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이다.

글로벌 기업이 국내 기업을 따라할 정도로 국내 화장품 기술이 발달했다면 좋아할 일은 아니다. 글로벌 시장을 넘보고 있는 국내 기업에는 "남 좋은 일"만 되는 꼴이기 때문이다.

미투 제품 출시는 국내 브랜드끼리도 종종 있는 일이다. 토니모리는 경쟁사 네이처리퍼블릭의 핸드크림과 흡사한 제품을 출시해 눈총을 받았다. 두 브랜드의 제품을 나란히 놓고 보면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하다.

미샤의 경우 미투 제품 출시로 재미를 보기도 했다. SK-II의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와 유사한 '타임 레볼루션 더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비롯해 '갈색병'으로 유명한 에스티로더의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를 본뜬 보랏빛 앰플 '타임 레볼루션 나이트 리페어 뉴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이 대표적인 예다. 두 상품은 미샤의 대표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소송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이 것 역시 쉽지 않다. 쿠션 제품을 두고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4년째 지루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중소 기업은 비용 부담때문에 소송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다반사다.

제품의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다.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제품 출시로 화장품 시장이 커질 수는 있어도 앞으로 자체 기술 없이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

도넘은 미투 전략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2		1	6		
				7				
3		7		9				
	6		3				4	1
	8						6	
5	4				9		2	
				8		1		4
				3				
		8	6		4		3	

	9			3			5	
	4		5					
1						4		9
9		3		1				2
8				4				6
4				6		1		8
3		9						4
					6		3	
	7			8			2	

스도쿠 정답

8	5	9	2	4	1	6	7	3
4	2	6	5	7	3	8	1	9
3	1	7	8	9	6	4	5	2
7	6	2	3	5	8	9	4	1
9	8	1	4	2	7	3	6	5
5	4	3	1	6	9	7	2	8
6	3	5	7	8	2	1	9	4
1	7	4	9	3	5	2	8	6
2	9	8	6	1	4	5	3	7

2	9	8	1	3	4	6	5	7
7	4	6	5	9	8	2	1	3
1	3	5	6	7	2	4	8	9
9	6	3	8	1	7	5	4	2
8	1	7	2	4	5	3	9	6
4	5	2	3	6	9	1	7	8
3	2	9	7	5	1	8	6	4
5	8	4	9	2	6	7	3	1
6	7	1	4	8	3	9	2	5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회계사무소 근무… 상사와 계속 트러블 자신의 말 되짚어 보고 현실 받아들여야

알고 싶어요. 여자 88년 9월 26일 (양력) 오후 1시 10분

Q 제가 지금 회계사무소에서 8개월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제해주는 상사와 계속 트러블이 생겨서 너무 힘듭니다. 저와 함께 입사한 동기 2명은 별다른 문제가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덜렁대고 꼼꼼하지 못해서 이 직종이 맞는지 아니면 일반회사 경리를 하는 게 맞을지 고민됩니다. 저는 결혼해서도 계속 일을 하고 싶습니다.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어느 직종이 저에게 맞을까요? 선생님의 조언을 꼭 듣고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A 귀하의 성정은 정관격(正官格:직업)으로 명예와 원칙을 중요시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도덕과 윤리의식이 투철하게 책임감이 강합니다. 성미에 맞는 직종이나 직업을 갖는다면 경찰공무원이 있을 터인데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지내고 있으니 그곳 실정에 맞추어야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2015년 음력 2월까지 신경이 예민하여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적습니다. 3월지나 이동수가 생기나 2015년은 직업군이 이전최화(날카로운 가위로 꽃을 자름)의 이동 수가 작용됩니다. 상사와의 트러블을 내가 말하는 마디마디마다 꽃의 가시처럼 가시가 없는지 트러블을 만들게 작용하는 요인이 있는지 되짚어 보시기바라면서 2015년 보다는 2016년이 발전되고 2014년에 비해 2015년의 변화는 달갑지 않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이 좋아 하는 일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자립으로 이익뿐만 아니라 인생의 보람을 찾을 수가 있겠는데 체계가 확립된 공간에서 지내다가 일반 경리로 간다면 다시 바뀌는 환경을 극복해 나갈지도 의문입니다. 자신이 있고 가고싶은 곳을 간다면 평양감사도 싫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자기 일을 사랑하고 몰두하면 화합이라는 기운도 함께 하여 안정된 직장 두 마리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안정성만을 추구하는 곳을 발견하기 힘이 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사회적 가치와 함께 봉사하여야 보람 있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일지에 장생궁(長生宮)으로 총명하여 여러 액을 만나도 길신(吉神)으로 변하는 아름다운 기운이 내재돼 있으니 화를 줄여보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2월 25일 (음 1월 7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48년생 부부가 함께 나들이를 가면 좋습니다. **60년생** 새로운 일을 착수하거나 시작하세요. **72년생** 자신을 희생하면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84년생** 추진하던 거래나 계약이 성사될 듯 합니다.

49년생 아무리 급해도 서두르면 안됩니다. **61년생** 현재 일보다는 새로운 일이 좋습니다. **73년생** 친구나 동료를 만나면 즐겁습니다. **85년생** 감정보다는 냉철한 이성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50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날이 없습니다. **62년생** 언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74년생** 거래가 성사되거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86년생** 문서에 인연이 있으니 희소식이 올 수 있습니다.

51년생 기회가 왔으니 더욱 정진하세요. **63년생** 옛친구나 동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75년생** 내가 속한 곳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87년생** 허황된 욕심보다는 현실에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

52년생 너무 쉽게 믿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64년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76년생** 주위의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을 수 입니다. **88년생** 이성운, 금전운 모두 좋은 하루입니다.

53년생 웃음이 만발하는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65년생** 집안에 좋은 경사가 있겠습니다. **77년생** 다칠 수 있으니 행동과 안전에 주의하세요. **89년생** 이성과의 싸움은 양보하는게 좋습니다.

54년생 명예와 인기가 모두 좋습니다. **66년생** 하는 일마다 잘 이루어집니다. **78년생** 부부나 이성운이 좋고 사업방면에도 희소식이 있겠습니다. **90년생** 일에 대한 마무리와 맏조심이 필요합니다.

55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잘 풀립니다. **67년생** 고집보다는 주위의 조언을 듣는게 좋습니다. **79년생** 갈등이 있던 사람과 화해하게 됩니다. **91년생** 자신을 희생해야 더 큰 것을 얻습니다.

56년생 명예가 오르는 하루입니다. **68년생** 부부, 이성과의 갈등이 풀리고 기분이 좋습니다. **80년생** 가족때문에 신경쓸 일이 있겠습니다. **92년생** 친구들과 만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57년생 가족이나 지인에게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69년생** 서두르면 후회하니 신중하세요. **81년생** 되로 주면 말로 받으니 언행에 주의하세요. **93년생** 식복이 있으니 대접을 받거나 접대를 하세요.

58년생 명예가 오르는 길한 하루입니다. **70년생** 부부와 가족간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82년생** 사업운이 길하고 사세가 확장되겠습니다. **94년생** 친구나 동료간에 사소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59년생 휴식과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71년생** 돈쓸 일이 많아지고 약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83년생**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95년생** 모든 것이 평탄한 하루입니다.

"황사 먼지 씻어내요" 서울 종로구청 물청소차량이 24일 종로3가에서 겨울황사로 뒤덮였던 거리를 씻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자치부,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 개편

행정자치부는 결재서류 원문보기 등 정보공개 서비스 확대를 앞두고 최근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개편했다고 24일 밝혔다.

개편된 정보공개포털은 시스템의 웹접근성을 높이고 검색기능과 안정성을 개선, 크롬이나 사파리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도 모든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개편 이전 정보공개포털은 익스플로러가 아닌 다른 브라우저에서 정보공개청구 기능이 원활하게 구동되지 않는 등 웹접근성과 안정성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 정보공개청구와 무관하게 각 기관이 미리 공개하는 각종 '사전공표정보' 서비스에 기관별 검색기능이 보강됐다.

이번 사이트 개편과 함께 행자부는 기존 결재문서 원문공개 서비스 전용 웹사이트(http://wonmun.open.go.kr)의 운영을 중단,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로 통합시켰다. 이용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청구, 결재서류 원문 보기, 사전공표정보 보기 등 정보공개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자부는 다음달부터 정보공개포털의 결재서류 원문공개 서비스 대상 기관을 시군구청과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현정기자

중앙대, 2차 기숙사 준공

중앙대학교가 학생 1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서울캠퍼스 2차 기숙사를 2년여 만에 준공했다고 24일 밝혔다.

2012년 10월 착공해 2년 4개월만에 공사를 마친 2차 기숙사는 지하 1층~지상 14층 연면적 3만3997㎡ 규모에 방 716개실을 갖춰 1432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세미나실, 식당, 세탁실, 피트니스센터 등 편의시설도 갖췄다.

중앙대 관계자는 "2차 기숙사 준공으로 기존 1차 기숙사 898명의 인원을 포함해 2330명의 학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며 "재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보 등록 첫날부터 '후끈'

막오른 조합장 선거

일부 지역선 '눈치 작전'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드디어 막을 올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1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24일과 25일 이틀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이른 아침부터 후보 등록을 하려는 출마 예정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9곳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충북 음성에서는 이날 오전 9시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1시간만에 35명의 예비 후보자가 선관위를 방문했다. 입후보 예정자가 37명 정도일 것이라는 선관위의 예상을 감안하면 후보 등록 개시와 함께 거의 모든 출마 예정자가 후보 등록을 한 셈이다.

또 전북 익산에서도 등록 접수 직후 40여 명의 예비 후보자가 몰려들었으며 김제와 부안 역시 20명이 넘은 예비 후보자가 일찍 다녀갔다.

총 101명의 조합장을 뽑는 강원지역에는 오전 10시30분까지 93명의 후보자가 조합장 도전을 선언했다. 경기지역은 177개 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시·군 선관위별로 5~8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들의 움직임을 살피는 등의 눈치작전을 펴기도 했다. 인천과 부산, 제주 등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으며 등록 대신 선관위에서 비치한 선거운동 관련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는 사람들도 다수 눈에 띄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후보 등록기간이 지나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등록을 서두르지 않는 예비 후보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는 농·축협 1115곳, 산림조합 129곳, 수협 82곳 등 전국 1326곳에서 치러지며 조합원은 280만명 가량이다. 또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다음 날인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성큼 다가온 봄내음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목련 중 유일한 상록수인 초령목이 제주에서 개화하며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다. 초령목은 '나뭇가지를 신전에 놓고 신령을 불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연합뉴스

서울시 나눔진료 실시

서울시가 노숙인과 쪽방거주자, 외국인 노동자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눔진료봉사단'을 운영한다.

봉사단은 서울시 산하 9개 병원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내과와 외과, 정형외과 등의 진료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는 영등포역과 청량리역에서 시범으로 진료단을 운영하고 봉사단 활동도 총 90회로 확대해 1만6000명의 시민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안과와 피부과 등 특화진료도 마련하고 500명 쪽방거주자에게 췌장암·폐암 등의 추가 검사를 할 계획이다. /조현정기자

인사

■ 교육부

◇ 서기관 ▲지방교육재정과장 이보형

■ 고용노동부

◇ 과장급 파견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김수진

■ 여성가족부

◇ 과장급 전보(부이사관) ▲여성정책과장 최성지 ▲가족정책과장 김중열 ◇ 과장급 전보(서기관) ▲다문화가족정책과장 최은주 ◇ 과장급 승진(서기관) ▲창조행정담당관 조성균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양진영

■ 한국시설안전공단

▲비상임감사 배정량

■ 해양환경관리공단

◇ 상임이사 신규 임용 ▲ 해양방제본부장 심유택

■금융감독원

◇ 선임국장 직위부여 ▲금융혁신국장 겸 선임국장 김용우 ▲서민금융지원국장 겸 선임국장 조성목 ◇ 국·실장 직위부여 ▲거시감독국장 류태성 ▲제재심의국장 이병삼 ▲저축은행감독국장 장병용 ▲기업금융개선국장 장복섭 ▲자산운용검사국장 김도인 ▲회계조사국장 이봉헌 ▲분쟁조정국장 이재민 ▲인재개발원 실장 김철영 ▲금융상황분석실장 김동성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부센터장 임세희 ▲보험영업검사실장 이성재 ▲IT검사실장 임민택 ▲여신전문검사실장 하은수 ▲기업공시제도실장 오영석 ▲금융민원조정실장 이현열 ▲창원사무소장 정영석 ▲제주사무소장 류국현 ▲전주사무소장 김수헌 ▲춘천사무소장 박연화 ▲충주사무소장 황성관 ▲강릉사무소장 이효근 ◇국실장 전보 ▲기획조정국장 민병현 ▲총무국장 이문종 ▲뉴욕사무소장 오홍석 ▲런던사무소장 정인화 ▲공보실 국장 설인배 ▲감독총괄국장 최성일 ▲법무실 국장 박홍석 ▲보험감독국장 진태국 ▲보험상품감독국장 조운근 ▲손해보험검사국장 오홍주 ▲은행감독국장 류찬우 ▲외환감독국장 김재춘 ▲상호여전감독국장 박상춘 ▲일반은행검사국장 조성열 ▲특수은행검사국장 이익중 ▲저축은행검사국장 안병규 ▲상호금융검사국장 정성웅 ▲금융투자감독국장 조국환 ▲금융투자검사국장 김재룡 ▲기업공시국장 장준경 ▲자본시장조사1국장 김현열 ▲자본시장조사2국장 조효제 ▲특별조사국장 조철래 ▲회계심사국장 정용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 조성래 ▲금융교육국장 강전 ▲감사실 국장 박현철 ▲대구지원장 안세훈 ▲광주지원장 박흥찬 ▲대전지원장 오창진 ▲비서실장 민병진 ▲대부업검사실장 양일남 ▲중소기업지원실장 김동건 ▲자산운용감독실장 한윤규

■ 한국로봇산업협회

◇ 승진 ▲본부장 김재환 ▲차장 기술표준팀장 서준호 ▲과장 관리지원팀 이영민

부고

▲ 정언옥씨 별세, 정세웅(군인)·경무(자영업)·경원(자영업)·영신(주부)씨 부친상, 노희진(코스콤 상임감사)씨 장인상 = 23일 오후 5시 55분,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 발인 26일 오전 9시 30분, 02-2227-7500.

▲ 주말연씨 별세, 차정민(풍산금속 상무보)·두현(전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이사)씨 모친상 = 24일,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7일 오전 7시, 02-2258-2940

▲민병형(전 동아대 교수)씨 별세, 이태진씨 남편상, 민은영·은미(티파니코리아 부장)·정윤·상철(경남개발공사 차장)씨 부친상, 이종헌(안산청담정형외과 원장)·강민석(중앙일보 정치부 부장대우)씨 장인상 = 23일 오후 4시 동아대병원, 발인 25일 오전 8시, 051-256-7011

▲ 이농월씨 별세, 김계춘(제주매일 주필)씨 모친상 = 23일 오전 11시45분, 천주교 신제주성당, 발인 26일 오전 10시 010-3698-2220

공무원 '예산 성과금 잔치'

작년 지급액 98%…지자체, 공무원엔 '관대' 시민엔 '엄격'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절감했거나 세수를 늘리는 데 이바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예산 성과금의 98%가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위례시민연대가 서울시 등 33개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급한 예산 성과금 441건 8억8577만원 중 일반 시민에게 준 성과금은 27건 2050만원에 불과했다. 지급액 기준으로 전체의 2.3%에 불과한 수준이다.

행정자치부는 2011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민간인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지만 아직도 지자체들은 공무원에게 관대하고 시민에게는 엄격한 기준으로 포상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50조는 자발적이거나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했거나 증대한 경우에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 사례를 보면 당연히 해야 할 본연의 담당 업무 수행을 성과로 인정한 경우가 많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명동관광정보센터 건립, 수로 보수방법 개선, 노을공원 물탱크 재활용 등을 담당한 직원들에게 2억9377만원을 지급, 조사 대상 지자체 중 직원에게 가장 많은 예산을 지급했다. 시민에게는 공무원 지급액의 2.5%인 75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 자치구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송파구는 폐형광등 수거체계 개선, 가락시장 내 도서관 확보, 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등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2903만원을 줬다.

서초구도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환급과 불법 광고물 단속 등 본래 업무를 해온 직원에게 1880만원을, 양천구도 진료기록부 전산화와 취업박람회 개최 담당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했다.

다른 광역시·도의 경우 부산시는 고금리 지방채의 저금리 차환 등 근무자에게 8240만원, 대구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직원에게 4100만원, 인천시는 수도요금 자동이체 담당자에게 3220만원을 포상했다.

또 예산 성과금과 별도로 매년 3월 중순 전국 공무원에게 성과 상여금이 지급되는데 서울은 올해 49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공무원들이 예산 성과제의 외부 장벽을 높게 쌓아놓고 자신들만의 포상금 잔치를 벌이며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사와 함께 시민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재정난을 호소하려면 내부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해양사고 대응 훈련 포항해양경비안전서가 24일 인명구조, 화재·조난선 구조 등 해양사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소년 동의 후 성관계 촬영 무죄"

청소년과 합의한 후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행위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사귀던 17세 여성 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김모(27)씨의 혐의(아청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박모양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후 김씨는 박양의 부탁으로 동영상을 삭제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아청법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1·2심은 이 사건 동영상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만 촬영 과정에서 성적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거래·유통·배포의 목적이 없었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무죄라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김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박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황재용기자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마이클 최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1000명의 원고단으로 구성된 일제강제징용피해자와 유족들의 소송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 첫 '아동학대 사건' 전담 형사재판부

인천에 아동학대 사건 전담 형사재판부가 전국 최초로 신설된다.

인천지법은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3개의 형사재판부를 신설한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와 형사9단독(권순엽 판사), 형사3부(김도현 부장판사)가 아동학대 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정됐다.

형사14부는 사형이나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중요 아동학대 사건을 맡아 처리하며 형사9단독은 그 외 사건을 맡는다. 또 형사3부는 아동학대 관련 항소심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지난해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가정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 아동학대 사건 전담 재판부가 신설된 바 있지만 일반 법원에서 아동학대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네 살배기 어린아이가 김치를 안 먹는다며 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구속기소된 인천 송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3)씨에 대한 재판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에 배당됐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현정기자

경찰, 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

아동·대학가 성폭력 예방과 함께 집중수사

경찰이 성폭력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경찰청은 아동과 대학 내 성폭력 예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경찰은 학생상담센터 110개가 참여하는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대학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관련 정보를 교류해 인지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개별 성범죄 사건 처리에 있어 대학 측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조치다.

게다가 경찰은 다음달 중으로 관계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열어 대학·직장 등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4월부터 두 달간 대학 내 성범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대학 내 성범죄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초·중·고등학교 주변 성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부와 아동·학교 성폭력 예방 실무협의회를 조직해 안전체계를 강화한다. 전국의 학교별 출입통제 시설과 외부 출입자 관리 실태 등을 파악하는 동시에 아동안전지킴이와 자율방범대 등의 치안 보조인력을 방과 후와 휴교일에 집중 배치해 학생들의 보호활동도 전개한다.

경찰은 또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수사팀에서 피해자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보호관 역시 277명에서 67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피해자보호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심리상담·치료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인프라도 보완되며 여름철 해수욕장이나 대중교통 내에서 빈번한 '몰카' 성범죄 등 시기·테마별 단속도 진행된다.

/황재용기자 hsoul38@

간통죄 위헌 여부 내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 간통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선고한다.

형법 241조 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간통죄 존폐를 놓고 팽팽히 맞서왔다. 현재 역시 모두 합헌을 결정했지만 이 조항에 대해 총 네 차례에 걸쳐 선고를 내린 바 있다.

만약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과거 간통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이들 중 일부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